

군, 국민을 지키다

국방일보 코로나19 현장 리포트

군, 국민을 지키다

국방일보 코로나19 헌정 리포트

군, 국민을 지키다

국방일보 코로나19 헌정 리포트

초판 1쇄 인쇄 2020년 6월 17일
초판 1쇄 발행 2020년 6월 22일

발행처 국방홍보원
발행인 박창식

기획 국방일보 취재팀
편집인 이길호
취재/글 윤병노 맹수열 김상윤 서현우 안승희 임채무 최한영
사진 조용학 한재호 이경원 양동욱 조종원
편집 양동욱 김민정

주소 04353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부 취재팀
전화 02-2079-3730
군전화 947-3730
이메일 news@dema.mil.kr

디자인 제작 (주)박이정

〈비매품〉

※ 이 책자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contents

목 차

국방부 코로나19 대응 일지 _ 006

제1장 최전선을 지킨 사람들 _ 012

- 코로나19 국군장병 희망캠페인 '좁은 히어로' _ 014
- 대구 동산병원 의료지원 : 국군 수도병원 유덕현 중령 (진) _ 024
- 인천공항 검역지원 : 육군수도군단 특공연대 박병주 대위 _ 030
- 김포 · 인천공항 검역지원 : 육군특전사 귀성부대 박인용 소령 _ 037
- 육군2작전사령부 방역대책본부 _ 042
- 면 마스크 제작 기여 : 해군군수사 보급창 병참지원대 조미혜 군무주무관 _ 048
- 미얀마 방역물자 수송 :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김우현 소령 _ 054
- 국군대구병원 음압병상 공사 지원 : 육군2작전사령부 1117공병단 _ 061
- 방역지원 : 육군2작전사령부 현장방역작전팀 _ 069
- 의료지원 : 대구병원 자원 해군포항병원 신임 간호장교 장근창 소위 _ 075
- 방역지원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시설방역팀 윤진호 중위 _ 083
- 예방적 격리 이겨낸 육군 51사단 전투지원중대 김태민 상병 _ 090
- 의무사 진단키트 주역 국군의학연구소 노경태 박사 _ 096
- 국군의무사 방역대책본부 하범만 통제처장 _ 102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보건정책과, 국방신속지원단, 병영문화혁신팀 _ 108
-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특별 기고 _ 119

제2장 다양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 _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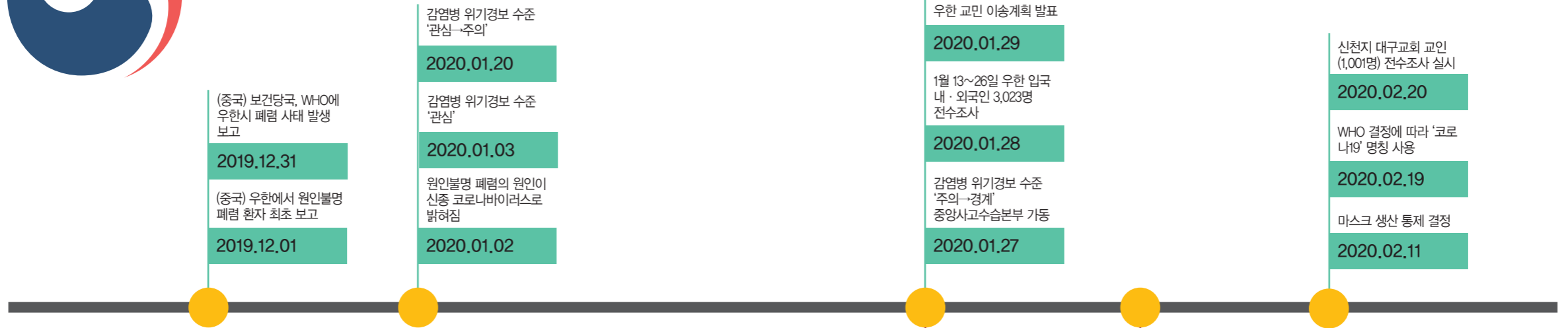
- 전국 공항 등 21개소 군 의료인력 100여 명 투입 _ 126
- 코로나19 확산 방지 · 軍 유입 차단 총력 _ 130
- 신병교육 입소식 간소화 : 육군50사단, '코로나19 대응 현장' 르포 _ 134
- '면밀 대응' 육군훈련소 코로나 19 불안 없다 _ 140
- 국방어학원 중국 우한 교민 임시 거주지 제공 _ 146
- 국군대구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코로나19 본격 지원 _ 150
- 국군대구병원, 코로나19 환자 치료 시작 _ 153
- 신임 간호장교 대구파견 _ 157
- 국군수송사 의료물자 전담수송팀 긴급 투입 _ 161
- 국방부 '국방신속지원단' 긴급편성 _ 164
- 대구 한마음아파트 한미연합 방역작전 _ 167
- 미얀마 방역물자 공군 수송기 긴급 투입 _ 171
- 의무사 코로나19 앱 개발 _ 174

제3장 현장 화보 _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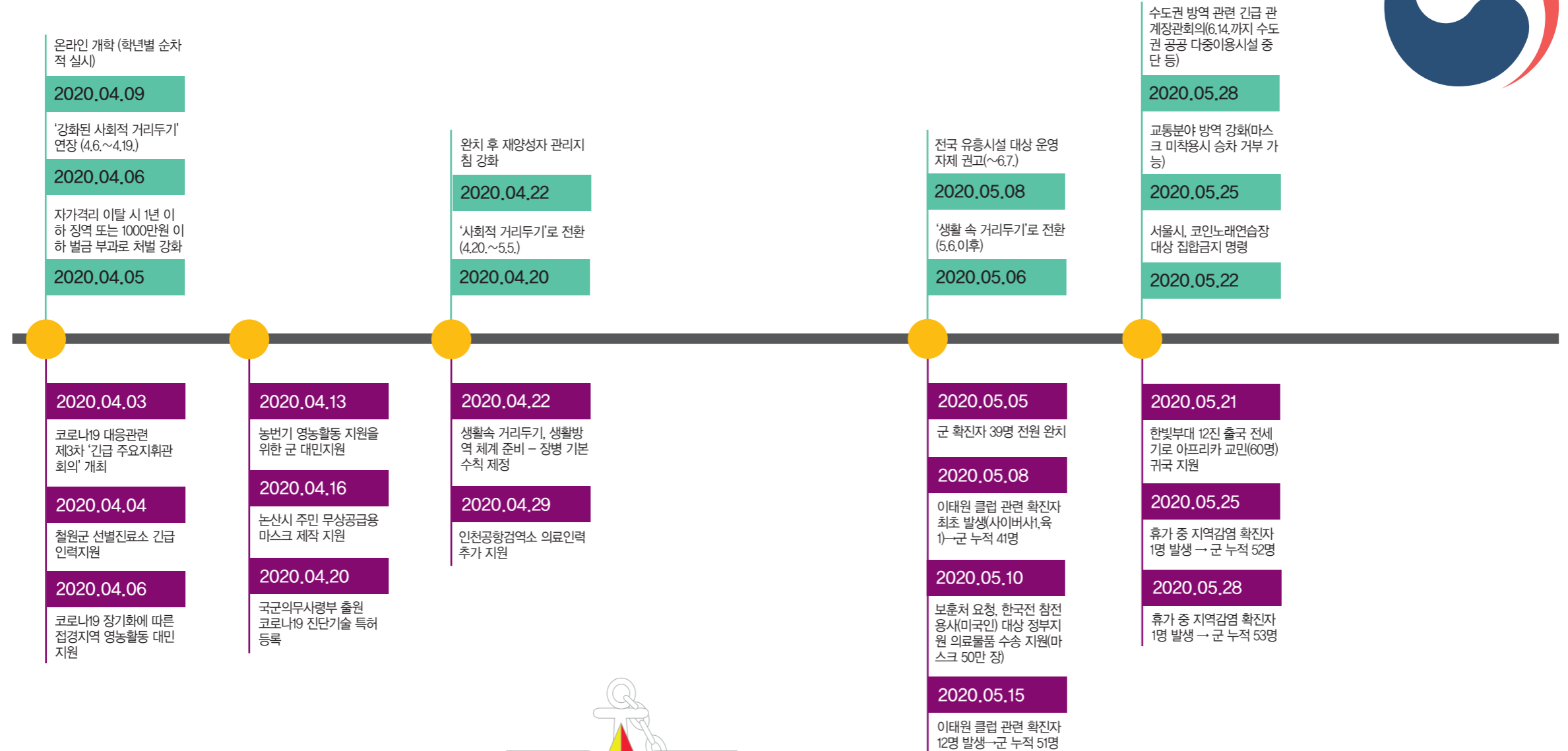
1. '포토스토리' 국군대구병원 감염관리장교 강혜진 대위 _ 184
2. 최전선 대구 · 경북에서 _ 196
3. 국민과 함께 _ 236
4. 함께 이겨냅시다 _ 286



범정부 대응



국방부 대응





제1장

최전선을 지키는 사람들

코로나19 국군장병 희망캠페인 '좁 人 히어로'

대구 동산병원 의료지원 : 국군 수도병원 유덕현 중령 (진)

인천공항 검역지원 : 육군수도군단 특공연대 박병주 대위

김포 · 인천공항 검역지원 : 육군특전사 귀성부대 박인용 소령

육군2작전사령부 방역대책본부

면 마스크 제작 기여 : 해군군수사 보급창 병참지원대 조미혜 군무주무관

미얀마 방역물자 수송 :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김우현 소령

국군대구병원 음압병상 공사 지원 : 육군2작전사령부 1117공병단

방역지원 : 육군2작전사령부 현장방역작전팀

의료지원 : 대구병원 자원 해군포항병원 신임 간호장교 장근창 소위

방역지원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시설방역팀 윤진호 중위

예방적 격리 이겨낸 육군 51사단 전투지원중대 김태민 상병

의무사 진단키트 주역 국군의학연구소 노경태 박사

국군의무사 방역대책본부 하범만 통제처장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보건정책과, 국방신속지원단, 병영문화혁신팀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특별 기고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대구병원에서 감염관리장교 강혜진 대위 ©양동욱



대구 남구의 한 버스차고지에서 생활밀착형 방역활동에 나선 육군201특공여단 비호대대 송승현(왼쪽) 중위와 박훈영 상사(진) ©양동욱





대구동산병원에서 1차 군의료지원팀 군의관 최성민(국군구리병원) 대위, 유덕현(국군수도병원) 중령(진), 박세진(국군홍천병원) 대위(왼쪽부터) ©양동욱



대구 한마음아파트에서 한미연합방역작전에 나선 육군2작전사령부 화생방대대 김보슬(왼쪽) 중사와 주한 미8군 19지원사령부 아이벨리 이병 ©양동욱



대전 자운대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졸업 및 임관식 직후 대구
행 버스에 오르던 60기 신입 간호장교 정은희 공군 소위. ©양동욱



대구염색산업단지 방역작전에 참가한 육군50사단 기
구대대 민혁(왼쪽) 상병과 임현성 일병. ©양동욱





서울 광진구 2호선 강변역에서 방역활동에 나선 육군56사단 비룡연대 비호대대 장성철(왼쪽) 중곡1동 예비군 동대장과 박종원 자양4동 예비군 동대장 ©조종원



전등식호흡장치(PAPR)를 착용하고 중환자실 진료를 마친 대구동산병원 1차 군 의료지원팀 간호장교 김혜진(국군포천병원) 대위 ©양동욱

제1장

최전선을 지킨 사람들

대구 동산병원 의료지원 : 국군 수도병원 유덕현 중령 (진) 국가 부름에 지체없이 대구로... 국민 지킴이 사명감으로 임무 완수

1차 군 의료지원팀 진두지휘
방호복 입고 2시간 교대 '사투'
1개월간 확진자 500명 진료



대구 동산병원에서 1차 군 의료지원팀장 임무를 수행할 당시의 유덕현 중령(진) 모습.
©조종원

동산병원 의료지원, 군인·의사로서 당연

“미지의 바이러스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지체 없이 대구동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군수도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유덕현 육군중령(진)은 코로나19가 확산 일로를 걷던 지난 2월 23일 대구 동산병원에 파견된 1차 군 의료지원팀을

진두지휘했다. 동산병원은 2월 21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산하 종합병원이다.

1차 군 의료지원팀은 팀장인 유덕현 중령(진)을 비롯한 군의관 10명, 간호장교 10명으로 편성됐다. 이들은 약 한 달 동안 대구시 확진자를 돌보는데 정성을 다했다.

“군 의료지원팀은 대구 동산병원이 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틀 후 파견됐습니다. 당시는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이었죠.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병상 확충도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군이 한 박자 빠르게 의료진을 투입했고, 대구에 거주하는 의료진의 정성 어린 진료로 안정세를 되찾아갔습니다.”

사명감으로 임무 완수

유덕현 중령(진)은 약 1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하며 500명에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했다. 이 기간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의료진의 감염 관리였다. 의료진이 감염되면 모든 의료진이 격리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임무 전후 감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체적으로 매일 2회 체온을 검사했고, 근무 시간 외에는 각자 1인 숙소에 대기하면서 배달 도시락으로 식사를 대체했죠. 힘든 여건에서도 단 한 건의 감염이나 사고 없이 무사히 임무를 마친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최근 대구 확진자가 많이 감소해 뿌듯함을 느낍니다.”

을 느낍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낯선 곳으로의 파견 근무는 쉽지 않다. 유덕현 중령(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국민의 ‘생명 지킴이’라는 사명감과, 같은 내과 의사인 아내의 적극적인 지지 덕분에 무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동산병원 전체가 격리돼 내부로 들어갈 때부터 방호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탈수나 체력적 문제 때문에 보통 2시간 이내로 교대 후 휴식을 취했죠. 하루에 40~50명 정도 회진을 도는데, 평소 환자 면담을 길게 하는 편이라 초반에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도 있다.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의 어머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동산병원에 입원한 사연도 있었다.

“기저질환(어떤 질병의 원인이나 밑바탕이 되는 질병·지병)이 있는 데다 폐렴까지 양쪽에 생긴 상태였습니다. 결국 유명을 달리하셨죠. 주치의가 아니어서 많이 챙겨드리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개인위생 지키면 안전한 대한민국 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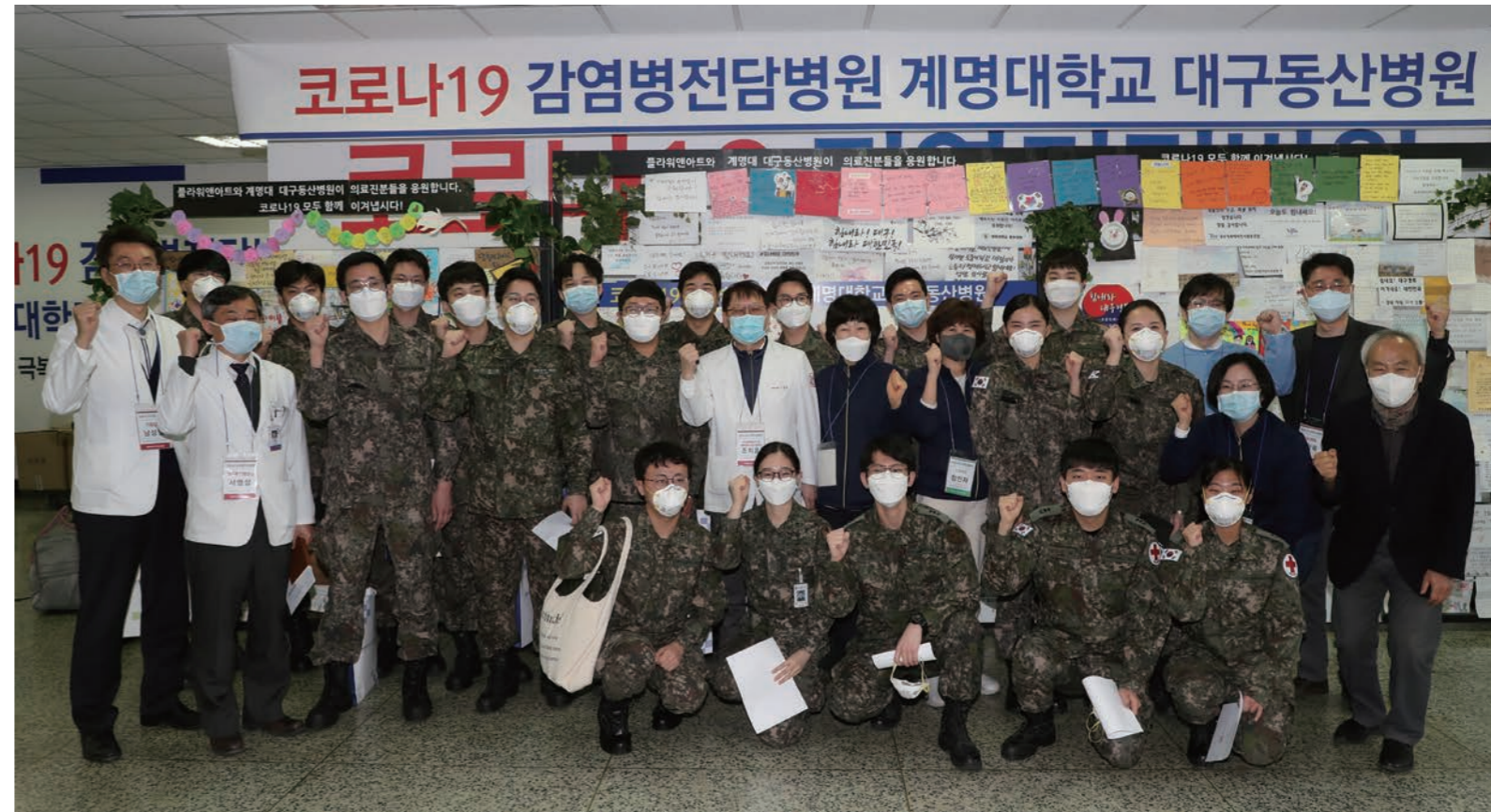
우리 군의 헌신적인 의료 지원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 유덕현 중령(진)은 이에 대해 군의 일상불란한 의료시스템을 원동력으로 꼽았다.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진료 일선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의료진은 군뿐입니다. 각 군 병원에 근무하던 군의장교와 간호장교는 명령과 동시에 동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정장교들은 우리가 투입되자마자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했죠. 하나의 지휘체계와 톱니바퀴 같은 조직력, 군인으로서의 사명감 등이 시너지를 극대화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동산병원 1차 의료지원팀은 2주 자가격리 후 군 병원으로 복귀했다. 유덕현 중령(진)도 복귀하여 국군수도병원 호흡기내과에서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군의관으로서 국민과 장병에 대한 당부의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정부와 전 국민의 대처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에 의해 코로나19의 정확한 병태 생리(병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확인되고, 치료제나 백신이 상용화될 때까지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구 동산병원에서 1차 군 의료지원팀원들이 3월 21일 임무를 마친 뒤 동산병원 의료진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양동욱



제1장

최전선을 지킨 사람들

인천공항 검역지원 :
육군수도군단 특공연대
박병주 대위

‘조국이 부르면 어디든 간다’는 신념으로
‘대한민국 관문 지켜냈다’ 자부심

두 차례 인천공항 군 검역지원단 임무
문진표 작성·앱 안내 등 다양한 활동
지금 다시 임무 주어져도 달려갈 것



육군수도군단 박병주 대위 ©부대제공

국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임무 지원

“검역지원 활동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다시 똑같은 선택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검역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박병주 대위는 국방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역지원 활동을 통해 느낀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5일까지와 4월 4일부터 1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군 검역지원단 소속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군 검역지원단은 수도군단 특공연대와 17사단, 특수전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장병 등으로 편성된 조직으로,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입체적 검역, 통역, 의료지원 등 코로나19 유입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박병주 대위가 군 생활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말은 ‘조국이 부르면 어디든 간다’이다. 부대 신조이기도 한 이 말은 그가 국가적 재난과 위기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저 없이 검역지원 임무를 지원한 이유였다. 박병주 대위는 당연하다는 듯 임무에 나섰지만, 사실 부모님께서는 검역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동안 숨겼다. 부모님의 걱정을 염려한 아들의 속 깊은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었다.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처음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무 수행을 하면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늦기 전에 부모님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검역지원에 나섰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걱정의 말을 가장 먼저 꺼내셨습니다. 하지만 군 검역지원단에서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 제 뜻을 이해하고 많은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검역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감염 예방 대책

박병주 대위가 인천공항에서 수행한 임무는 입국자들의 문진표 작성과 자가진단 앱(APP) 설치 안내, 국내 거주지 및 비상연락처 확인 등 입국 과정 전반을 돕는 것이었다. 처음 투입 당시만 해도 중국발 입국자들만 검역했는데,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진행했다. 많은 사람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만큼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힘든 점을 물어봤다.

“많은 여행객이 저를 비롯해 군 검역지원단의 안내를 잘 따라주셔서 임무 수행에는 크게 힘든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검역으로 입국 시간이 지연되면서 일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혹 난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어렵고 힘든 것보다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박병주 대위는 방호복과 마스크 등 감염에 대비한 모든 대책이 강구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혹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는지 물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 검역 지원단에서 혹시 모를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해 임무 수행 장소를 매일 3회 이상 소독하고, 일회용 위생장갑과 손 소독제를 비치해 수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임무 투입 전후로 체온 측정이 이뤄졌고, 숙소에 군의관이 함께 지내면서 건강을 수시로 확인해 줘 그러한 마음을 곧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들 덕분에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군이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국가의 부름에 한걸음에 달려와 맡은 바 임무를 수행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애쓰는 장병들과 의료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육군수도군단 특공연대 박병주 대위는 지난 1월 30일~2월 25일과 4월 4일~19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에서 군 검역지원단 소속으로 문진표 작성과 자가진단 앱(APP) 설치 안내 등 검역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군 검역지원단 소속 장병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검역 활동을 하는 모습. ©한재호

장병 · 의료진 힘내길

박병주 대위는 임무 수행 중 많은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특히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검역지원단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해준 여행객들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고 전했다.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됨에 따라 입국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불만 없이 검역 지원하느라 고생한다며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 여행객들이 많았습니다. 또 위국헌신의 표본이라며 격려해주신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 등 많은 분의 따뜻한 응원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국하는 비행기가 몰려 끼니도 걸러 가며 정말 바쁘게 임무를 수행할 때도 아무런 불만 없이 검역 지원에 몰두한 동료들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는 지금도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장병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박병주 대위가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교육하고 있다. ©부대제공

제1장

최전선을 지키는 사람들

김포 · 인천공항 검역지원 :
육군특전사 귀성부대 박인용 소령
“첫날에는 새벽 1시까지...식사할 틈도 없었죠”

두 차례 47일간 인천공항 검역 지원
제대장으로서 상황 총괄 · 현장 통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장병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1월 28일부터 김포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대대적인 검역지원을 하고 있다. 4월 14일 기준으로 공항 검역지원에 투입된 특전장병 수는 연인원 1만800명에 달한다. 이 중 인천공항에 투입된 연인원 1만9800여 명이다. 하루 480여 명이 투입되는 인천공항 지원인력 중 특전사가 200여 명이다. 이들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과 입출국장, 입국자 격리시설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수전사령부 귀성부대에서 지역대장으로 근무 중인 박인용 소령도 그 중 한 명이다. 박 소령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월 4일 검역지원에 처음 투입됐으며 16일간 임무를 수행한 후 교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특수전사령부 귀성부대 박인용 소령이 인천국제공항 검역대에서 입국자에게 검역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부대제공



따라 지난 3월 18일 2차로 검역지원에 나섰으며 4월 17일까지 총 47일간 임무를 수행했다.

박인용 소령은 “제대장으로서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에서 검역지원 상황을 총괄하고 현장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변수가 많은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인 전우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검역절차 개선 소요를 확인·보완하는 것도 임무 중 하나였다.

도착 첫날부터

박인용 소령은 지난 2월 4일 인천공항에 투입됐을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투입 당일 교육을 받고 현장을 참관한 후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며 “중국발 입국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입국 절차 진행 현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현장을 참관한 특전장병 모두가 공항 도착 첫날 오후 1시부터 전원 현장에 투입해 검역지원에 나섰다.

어려움도 많았다. 박인용 소령은 “말이 통하지 않아 영어와 보디랭귀지로 의사소통을 하고 휴대폰 통역 앱을 사용하면서 정신없이 임무를 수행했다”며 “첫날에는 입국자들이 줄어든 새벽 1시까지 모두가 밥도 못 먹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일부 입국자들이 특전사 장병들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박인용 소령은 “국민을 위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임무를 수행했지만 험한 말을 들을 때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전했다.

2차 검역지원 자원

그럼에도 2차 검역지원은 박인용 소령이 자원했다. 투입 다음 날부터 입국 검역 대상자가 확대돼 업무 과부하가 우려되고 인천공항 측에서 경험 있는 인원들을 필요로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박인용 소령은 “1차로 투입됐던 우리를 다시 필요로 할 만큼 임무를 잘하고 왔다는 생각에 보람도 느꼈다”고 전했다. 박인용 소령을 비롯한 특전사 장병들의 헌신에 힘입어 지난 2월 4일부터 14일까지 34만7400여 명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지원을 진행했으며 유증상자 2만900명, 확진자 319명을 식별하는 성과도 거뒀다.

국민의 응원은 임무 수행에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박인용 소령은 “임시 격리시설에서 머물렀던 입국자분들이 떠나며 전해준 손편지를 읽었을 때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인용 소령뿐만 아니라 다른 특전사 장병들의 노고도 빼놓을 수 없다. 2월 5일에는 윤명모 중위가 중국인 관광객이 분실한 지갑을 발견해 주인을 찾아줬고, 구인목 대위는 친동생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검역지원 임무를 하던 다른 전우는 아버지가 지난달 말 위암 4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현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복귀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다 4월 13일 복귀했다.

가족 응원도 큰 힘이 됐다. 아내와 6세 아들이 있는 박 소령은 “부모님과 아내가 많은 걱정을 했다”면서도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것이라곤 걸 알기에 임무 수행을 잘하고 오라며 응원해 줬다”고 전했다. 평소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데 검역지원까지 나선 그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재차 나타냈다.

박인용 소령은 국민에게도 “우리는 언제나처럼 위기를 이겨낼 것이다.



특수전사령부 귀성부대 박인용 소령이 인천국제공항 검역지원에 투입되는 특전장병들에게 검역절차와 유의사항을 교육하고 있다. ©부대제공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철저히 이행하며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제1장

최전선을 지킨 사람들

육군2작전사령부 방역대책본부
24시간 비상체제 가동...
병영 · 지역사회 안전 지킨다

영 · 호남, 충청권역 컨트롤타워
주 · 야간으로 실시간 작전 수행
군 감염예방 · 지자체 지원 주도

군의 영 · 호남, 충청권역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인 육군2작전사령부 (2작전사)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월 21일 편성된 후 지금까지 24시간 불이 꺼진 적이 없었다. 사령부 본청에 마련한 방역대책본부에서는 120여 명이 A · B팀으로 나뉘어 주 · 야간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방역대책본부 출범 초기 상황은 급박했다. 각 지자체의 방역 요청이 이

육군2작전사령부 화생방대대, 주한 미8군 19지원사령부 장병들이 3월 13일 대구시 달서구 한마음아파트에서 연합 방역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양동욱



어지고 병영 내에서도 출타 복귀자 대상 유전자증폭검사(PCR), 밀접 접촉자 확인, 격리시설 마련, 증상 발현자 대상 예방적 격리 등의 상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실시간 대응을 해야 했다. 유정일(대령) 2작전사 계획인력과장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면서도 “2작전사령관님의 지침·정리를 토대로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2작전사 방역대책본부는 군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과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1전선),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유지(2전선),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범정부·지자체 지원(3전선)으로 구분되는 코로나19 대응 방안 중 1·3전선에 대한 상황평가와 대응을 주도한다. 이를 통해 병영과 지

육군2작전사령부 방역대책본부 요원들이 임무 수행 중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제공



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유정일 대령은 “대구·경북 지역 내에 설치된 범정부대책지원반 등에도 신속지원협력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파악한 후 2작전사로 전파하고, 육군본부·국방부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했다”며 “원래는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지만 구두보고를 통해 빠르게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합동방역으로 동맹 공고화”

유정일 대령은 코로나19 대응 상황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대구시 달서구 한마음아파트 한미연합 방역작전을 꼽았다. 한마음아파트 거주자들 사이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자 2작전사 화생방 대대와 주한 미8군 19지원사령부 장병들은 3월 13일 한마음아파트 진입로와 주차장 등을 방역하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섰다. 유정일 대령은 “한미동맹을 공고화하는 측면에서도 좋은 장면이었다”고 전했다.

어려움도 있었다. 지난 2월 25일에는 사령부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의무과장을 비롯한 의무팀 4명과 인사팀 1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격리된 것이 대표적이다. 의무 관련 업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무과장과 실무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육군본부와 수도군단 증원요원, 의무과 간부들을 추가 투입했다. 격리된 간부들도 예방적 격리자들과 모바일메신저 채팅방을 만들어 1일 3회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달 사항을 안내하는 등 원격 임무를 수행하며 위기를 넘겼다.

박중화(소령) 2작전사 간호관리장교는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가 하루에 수백 명씩 발생하고 병영 내에서도 수시로 유증상자가 발생하면서 업무 소요가 늘어날 때 예방적 격리자가 됐다”며 “2주간 독신자 숙소에 있으면서

격리자들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복귀 후에 관리 대상자들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계기가 됐다.

2작전사 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전시상황’이라는 인식하에 매일 오전·오후 상황평가 회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확인하고 병영 내 증상 발현자 관리, 예방적 격리 조치 등 병영 내 유입 차단에도 나서고 있다. 의무, 장비·물자·수송 지원, 방역 등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원 여부와 규모를 판단해 부대별 임무를 배분하고 있으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보급품·방역물자 확보도 하고 있다.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 당부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지만 피로가 쌓이는 것도 사실이다. 유정일 대령만 해도 방역대책본부가 꾸려진 후 충남 계룡에 거주 중인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고1·중1 자녀를 둔 유정일 대령은 “중1 딸은 ‘아빠가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 잘 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니 부대 장병들 신경 많이 써달라는 말도 가족들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월 5일까지 유지키로 한 가운데 2작전사 방역대책본부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유정일 대령은 “당장은 불편하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나의 노력이 코로나19 확산·전염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조금씩 노력해준다면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경각심을 풀 때는 아닌 듯하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유정일(대령) 육군2작전사령부 계획인력과장이 사령부 내 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대제공

제1장

최전선을 지킨 사람들

면 마스크 제작 기여: 해군군수사 보급창 병참지원대 조미혜 군무주무관 매일 10시간 재봉기 돌려 마스크 9700장 장병에게

인터넷으로 제작법 직접 찾아 익혀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소식에
15명 동료와 야근에 주말도 반납
“장병들 고맙다는 말에 피로 눈 녹듯”



해군군수사령부 보급창 병참지원대 조미혜 군무주무관이 재봉기를 이용해
면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부대제공

코로나19 초기에 일어난 마스크 품귀 현상은 전국을 혼란에 빠트렸다. 그야말로 '마스크 대란'이었다.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마스크의 수요가 폭증하여 수급이 불안정해 일어난 현상이다. 군도 이러한 위기에 예외일 수 없었다.

그러나 해군군수사령부(군수사)는 마스크 품귀 현상에 발 빠른 대응을

했다. 결론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해군 안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지난 2월 25일 마스크 군직 생산을 시작한 군수사는 지금까지 1만 2000여 장의 마스크를 만들었다. 이 중 9700여 장을 장병들에게 지급하여 코로나19의 부대 유입을 예방했다. 이는 보급창 병참지원대 피복·세탁팀 군무원 단 16명이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많은 장병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으로 재봉기를 돌리며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피복·세탁팀 조미혜 군무주무관의 얘기를 들어봤다.

지난 2월 23일 조미혜 주무관의 전화기는 불이 날 정도였다. 면 마스크 제작이 가능한지를 묻는 부대의 문의가 쇄도했다. 휴일을 맞아 집에서 쉬던 조미혜 주무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마스크 제작법을 찾기 시작했다. TV에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집에 있는 가정용 재봉기를 이용해 마스크 시제품 3개를 만들었어요. 마침 두 딸에게 마스크를 만들어주려고 준비해둔 재료가 집에 있었죠.”

재봉 분야 전문가인 조미혜 주무관에게도 마스크 제작은 쉽지 않았다. 시중에서 파는 마스크 규격을 참고하고 인터넷으로 제작 과정을 익힌 뒤 여러 번 실습한 끝에 그럴싸한 시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출근길에 조미혜 주무관은 마스크 시제품을 챙겼다. 부대는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면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기로 했다. 보급창 병참지원대는 조미혜 주무관의 면 마스크 도안을 보완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된 지 이틀만이었다.

면 마스크는 보급창에서 제작하는 제품이 아니었기에 무엇보다 자재 확

보가 시급했다. 부대가 마스크를 생산하기로 하자 조미혜 주무관은 즉시 부산진시장으로 달려갔다.

“신속하게 움직인 덕분에 마스크 5000장 정도를 제작할 수 있는 면 100% 고밀도 원단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마스크 생산이 늦어졌을 걸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조미혜 주무관이 원단을 확보한 지 사흘 뒤 부산진시장을 비롯한 전국 여러 재래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해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마스크 제작 과정도 녹록지 않았다. 마스크는 재단선 표시, 원단 커팅, 봉제, 상침, 끈 부착, 포장 등 10개가 넘는 공정으로 제작된다. 재봉 기술을 보유한 군무원은 부대에 단 16명이었다. 이들은 4월 말까지 면 마스크 1만4000장을 제작,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재봉기술 베테랑들이었지만 처음 해보는 마스크 제작은 이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스크 3개를 만드는 데 1시간이나 걸릴 정도였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였지만, 상황이 긴급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야근과 주말 반납이 불가피했죠. 지난 두 달여 동안 하루에 10시간 넘게 매일 재봉기를 돌렸습니다. 커다란 롤에 감겨 있는 원단을 자르기 위해 가위질을 2000번 넘게 했더니 손끝이 저리더군요. 오랫동안 앉아서 작업하니 허리가 아프고, 눈이 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만든 마스크를 쓸 장병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우리밖에 못 하는 일이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죠.”



면 마스크 제작에 참여한 해군군수사령부 보급창 병참지원대 조미혜·정미경·신진아
(앞줄부터) 군무주무관이 재봉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제공

군무원들의 정성이 담긴 마스크는 해군해양의료원을 통해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함정·지휘통제실 근무자 중심으로 배부되기 시작했다. 해군은 지난 3월 2일 함정에 승조하는 영외간부를 대상으로 영내대기 지시를 내렸다. 이때부터 마스크 5부제 도입으로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장병들에게 지급된 면 마스크 9700여 장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부대 측 설명이다.

조미혜 주무관은 몸은 힘들지만, 자신을 필요로 하는 군을 위해 일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한다.

“진해 군항에서 우리가 만든 면 마스크를 착용한 부사관을 우연히 만난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죠. 장병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조미혜 주무관은 퇴근 후에도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재봉기 앞에 앉는다.

“보건용 마스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조금씩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넘게 재봉기 앞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지만, 코로나19 예방에 힘을 보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대한민국과 해군의 코로나19 극복에 힘이 되길 바랍니다.”

제1장

최전선을 지킨 사람들

미얀마 방역물자 수송 :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김우현 소령
우리만 할 수 있고, 해야한다...
긴박했던 무박 2일

미얀마 생산 방역물자 국내 반입
왕복 16시간 비행 · 현지 4시간 작업
섭씨 40도 육박 날씨 속 강행군



지난 3월 펼쳐진 미얀마 방역물자 수송작전에서 임무 지휘관으로 역할을 수행한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251공수비행대대 비행대장 김우현 소령이 수송기 조종석에 앉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대제공

3월 초 우리나라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을 찍고 있었다. 수많은 의료·봉사 인력이 현장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펼쳤고, 국민 모두는 한뜻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방역물자의 추가 확보가 절실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미얀마에서 생산한 수술용 가운 8만 벌 등 방역물자를 서둘러 국내로 반입하려고 서둘렀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국적 항공사의 민간 항공기 운항이 전격 중단되며 차질이 빚어졌다. 인접 국가인 태국을 경유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최소 2주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정부는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해 공군 수송기를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3월 18일 오전 8시, 공군5공중기동비행단(5비) C-130J 수송기 2대가 미얀마를 향해 김해 공항을 이륙했다.

“방역물자 수송 임무가 주어졌을 때 상황이 엄중하고 긴박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국내 방역물자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수송해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임무 지휘관으로 미얀마 방역물자 수송 작전을 수행한 5비 251공수비행대대 비행대장 김우현 소령은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먼저 떠올렸다. 오랜 시간 공수비행 임무를 수행해 온 베테랑 조종사였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물자 긴급수송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지상에서의 별도 휴식시간 없이 약 24시간 동안 한국과 미얀마를 왕복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특히 현지 공항에서는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날씨 속에서 방역물자 적재와 이륙을 위한 지상조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체력적·정신적으로 부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우현 소령을 비롯한 요원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의지로 버티고 견뎌냈다. 조종사와 정비사, 항공적재사 구분 없이 모든 임무 요원이 함께 팔을 걷어붙여 방역물자를 수송기에 실었다. 미얀마 정부 관계자와 현지 공항 직원들도 지상조업과 검역을 포함한 출입국 업무에 도움을 제공하며 요원들을 응원했다.

김우현 소령은 “임무 준비 단계부터 이 작전은 우리만이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실 당시 방역물자 수송 작전은 미얀마 정부가 한국에서 오는 인원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공지하면서 취소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종사와 승무원 전원의 건강확인서를 사전 제출하고, 현지 비행장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끈질긴 협의를 진행한 끝에 검역절차를 면제받고 작전을 펼칠 수 있었다. 김우현 소령이 “임무 요원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공군, 현지 대사관, 양국 정부 관계자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한마음으로 움직였기에 성공적인 작전이 가능했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왕복 약 16시간의 비행과 현지에서 4시간에 걸친 작업까지 총 20여 시간의 임무 끝에 김우현 소령이 지휘·조종하는 수송기는 이튿날 새벽 김포 공항에 도착했다. 꼬박 하루가 걸렸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한시라도 빨리 방역물자가 의료시설과 의료진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했다.

김우현 소령과 요원들은 지체 없이 수송기에서 방역물자를 내려 트럭에 옮겨 실었다. 김우현 소령의 조종복은 땀으로 젖어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 활주로 끝에서 동이 뜨기 시작했고 방역물자를 모두 실은 트럭



지난 3월 18일 미얀마 방역물자 수송작전에 나선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장병들이 현지 공항에서 수송기에 물자를 적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공군제공

이 공항을 떠나며 작전은 마무리됐다.

김우현 소령도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무박 2일로 이뤄진 긴급공수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김포 공항에 착륙해 방역물자를 내렸을 때 내가 신고 온 물자들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부대에 복귀하자 부대원의 뜨거운 격려가 쏟아졌다. 집에서는 초등학교 두 아들이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김우현 소령은 마치 영화 ‘어벤져스’ 속 영웅처럼 국민을 위해 큰일을 한 것 같은 뿌듯함이 들었다고 했다. 그에게 감사 인사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전하자, 김우현 소령은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을 뿐”이라며 함께 비행한 요원들에게 그 공을 돌렸다.

“긴급하게 부여된 임무였음에도 비행과 화물작업 등 모든 과정이 어긋남 없이 계획대로 또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모두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밤낮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방역요원, 또 국민의 부름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는 장병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김우현 소령은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당당히 위기를 이겨내자는 말도 덧붙였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난 3월 18일 해외 방역물자 수송에 나선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장병들이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에서 물자를 수송기에 적재하고 있다. ©공군제공

제1장 최전선을 지키는 사람들

국군대구병원 음압병상 공사 지원 : 육군2작전사령부 1117 공병단 절박한 만큼 철저했던 음압병상 303개

휴일 반납하고 밤새우고... 자르고 붙이고 메우고...

7박 8일 간의 사투

매일 4회 체온측정 안전보장 최우선

연인원 520여 명 구슬땀 조기 완공



육군2작전사령부 1117공병단은 휴일도 반납한 채 7박8일의 공병작전을 통해 국군대구 병원이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개원되는 여건을 조성한 주역이다. 사진은 1117공병단 장병들이 국군대구병원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당시의 모습. ©부대제공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됐다. 대구·경북지역의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치료를 위한 음압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 일본일초를 닮는 상황이었다. 군은 긴급히 국군대구병원을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치료 전문 병동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했다. 막중한 임무에 투입된 육군 2작전사령부 예하 1117공병단 장병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조기 완공을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7박8일의 사투 끝에 마침내 303개 병상이 확보됐고, 121개 음압기가 각 병실 여건에 맞게 설치돼 모든 병실이 음압병실로 탈바꿈되었다. 국군대구병원이 예정대로 3월 5일 개원해 확진 환자 치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철야 작업도 마다하지 않은 장병들의 헌신 덕분이었다. 남은수(대령) 1117공병단장은 “당시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다”며 “대한민국을 코로나19에서 구해야 한다는 각오와 함께 어려운 시기일수록 군이 역량을 더 크게 발휘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며 임무에 돌입했다”고 회상했다.

“임무 투입 전 출정식을 열었어요. 어렵고 힘든 임무를 시작할 장병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죠. 포상을 약속하지는 않았습시다. 대신 우리가 군복을 입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위기에 빠진 국민은 곧 우리 아버지·어머니와 같음을 강조했죠. 또 이번 공병작전이 코로나19 극복의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장병들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공감의 바탕으로 고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병단은 최초 완공 목표 시점을 3월 12일 정도로 잡고 장병 25명을 투



남은수(대령) 1117공병단장 ©부대제공

입해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완공 목표 시점이 3월 8일로 당겨졌고, 이후 또 한 번 3월 5일로 크게 앞당겨졌다. 시간이 절 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공병단은 3월 2일부터 공사 병력을 약 4배 늘려 일 일 100여 명을 투입했다. 현행작전 필수 인원을 제외한 가용 인원 전원이었 다. 장병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야간에도 작업을 지속했다. 주말을 포함, 7박 8일의 공사 기간에 투입된 장병은 연인원 520여 명에 달했다.

남은수 공병단장 “포상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군복을 입은 이유 설명했 죠. 위기에 빠진 국민은 우리의 아버지·어머니 라고...” 남은수 단장은 “당 시 우리의 심정은 ‘할 수 있다’보다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에 가까 왔다”며 “개원을 앞둔 3월 4일부터 5일 아침까지 철야 작업이 이어진 끝에 극적으로 공사가 완료됐다”고 했다.

“돌발 상황까지 발생했어요.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가장 중요한 음압장비가 제시간에 들어오지 않았죠. 3월 4일 오후 5시 에 들어오기로 했던 음압장비의 도착 시각이 계속 미뤄지면서 결 국 다음 날 새벽 4시쯤 들어왔어요. 개원 당일 아침 6시까지 장비 설치, 마무리 공사, 음압 테스트가 연속적으로 긴박하게 진행됐을 때가 가장 초조했던 순간이었죠.”

남은수 단장은 공사 기간 줄곧 현장을 지켰다. 완성도 높은 공사 추진을 위해 대구시 등 관계자들과 일일 3회 현장 상황평가를 하며 공사 진도를 확 인하고 추가 지원사항을 토의했다. 또 병원 5층 건물을 수도 없이 오르내리 며 장병들을 독려했다.

“모든 작업 현장에 미비점이 없는지도 철저히 확인해야 했어요.

작은 틈새라도 있다면 음압시설 내 압력을 일정 이하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툭툭 붓는 것은 일상이었죠. 공사 현장 에서 하루 동안 걸었던 거리를 확인해보니 30km 정도 되더군요.”

지휘관으로서 조기 완공이라는 목표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은 장병들의 안전이었다.

“당시 민간인력까지 공사 현장에 들어온 상황에서 장병들의 코로 나19 감염 가능성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었어요. 만약 감염자가 나오면 조기 완공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감염 방지 를 위해 일일 4회 체온을 측정하고, 민간인과 동선을 철저히 분리 하는 등 장병들의 안전 보장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최일선에서 땀 사람은 남은수 단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공을 장병들에게 돌렸다.

“방호장비를 착용하면 가만히 서 있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공 사 현장은 무거운 자재를 들고, 설치하는 등 끝없이 움직여야 해 요. 잠깐만 작업해도 땀이 엄청나게 나고 크게 지치죠. 이번 공병 작전이 유달리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7박8일 동안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우리 장병들이야말로 조기 완공의 주역 들입니다.”

이번 작전 완수 이후 부대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대의 단결력과 사기가 한층 높아졌다는 것에 남은수 단장은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3월 27일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부대원 모두가 함께 시청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념사에서 우리 공병단의 노고를 치하해주셨죠. 마치 부대가 떠나갈 듯 장병들의 환호성이 울렸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장병들의 자부심이 대단해요.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부대의 단결력이 높아지고, 특히 우리 장병들이 크게 성장했다는 점이 지휘관으로서 가장 뿌듯합니다.”

육군2작전사령부 1117공병단 장병들이 완벽한 임무수행을 다짐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제공



제1장

최전선을 지키는 사람들

방역지원 :
육군2작전사령부 현장방역
작전팀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국민 보호 자부심”

주말도 없이 신혼여행도 미루고... 431건 방역 요청 중 99.8% 완료
누적 인원 2만939명 · 제독차 813대
코호트 격리시설 · 학교 · 버스 ‘살살이’



육군2작전사령부 화생방대대 장병들이 코로나19 방역작전 중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제공

팀원의 무한 헌신으로 작전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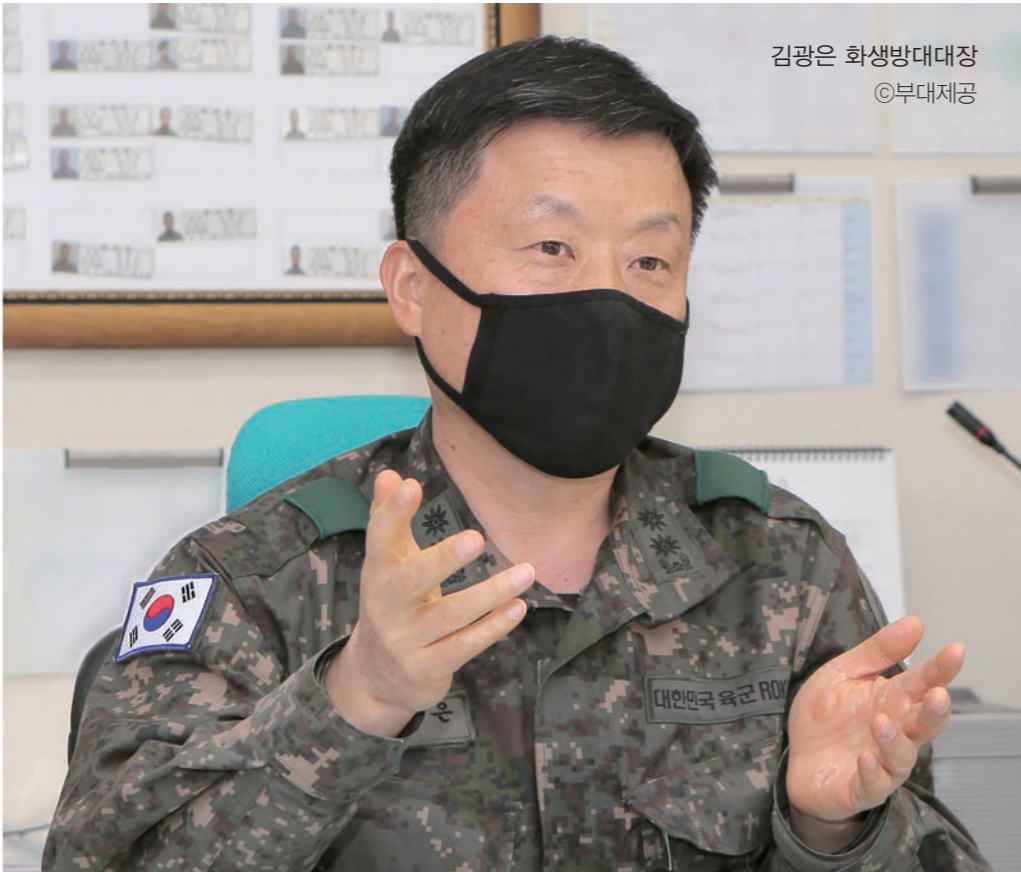
육군2작전사령부(2작전사) 현장방역 작전팀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산 방지의 중심에 서 있었다. 2작전사 현장방역 작전팀은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24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4311건의 방역 요청 중 99.8%(4304건)를 완료했다. 지금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주말도 없이 작전에 임하고 있다.

2작전사 현장방역 작전팀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사령부 화생방대대와 201특공여단, 50사단 예하 화랑여단 등으로 꾸려졌다. 이 중 화생방대대는 그간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역작전 초기부터 작전구역 곳곳을 누볐다.

김광은(중령) 화생방대대장은 “병과 임무 자체가 화학·생물학적 테러공격이 있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적(코로나19)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작전에 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적이 바이러스를 이용한 생물학전을 펼 경우 그걸 막는다는 개념에 기반해 김광은 중령 이하 대대원들은 두 달 넘게 임무에 매진하는 중이다.

구석구석 현장 방역

작전 기간 중 현장방역 작전팀은 4월 24일 기준으로 누적 인원 2만1939명, 제독차량 813대를 동원해 영·호남과 충청권 곳곳을 방역하고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했다. 현장작전을 나갈 때 국민들이 보이는 반응도 예전과는 달랐다. 과거에는 부대 밖에서 훈련을 할 때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국민의 응원 속에 작전을 진행한다. 김광



김광은 화생방대대장
©부대제공

은 중령은 “부대원들에게 커피를 전해주거나, 박수를 쳐주시는 분들도 많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대구 한마음아파트, 한사랑요양병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코호트 격리시설은 물론 학교·노인복지시설·버스 등 다중이용시설들의 생활화 방역 작전도 도맡아 실시했다. 대구 한마음아파트 방역의 경우, 3월 13일 2작사 화생방대대와 주한 미8군 19지원사령부 장병들이 한미 연합작전으로 진행했다. 김광은 중령은 “방역작전을 통해 한미가 동맹의지를 고취한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리는 국방장관님이 보내 주신 격려품을 제공하고, 미국측도 자신들이 준비한 펜을 우리 장병들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미국측의 지원 외에 다른 지역에 주둔하는 우리 군 병력 및 장비의 대구·경북 지역 현장 지원도 큰 도움이 됐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화생방사)와 육군7군단, 미사일사령부 등 3개 부대는 병력 100여 명과 제독차 30여 대를 대구·경북 지역에 파견해 38일간 방역작전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366개소에 누적 인원 1280여 명과 제독차량 270여 대를 투입해 곳곳을



육군2작전사령부 화생방대대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역작전팀과 주한 미8군 19지원사령부 방역팀이 지난 3월 13일 대구 한마음아파트에서 한미연합 방역작전을 하고 있다. ©양동욱

소독했다. 특히 화생방사 시설내부방역팀은 우리 군이 보유한 최고의 방역 장비인 '과산화수소 이온 발생기'를 운용하며 취약시설을 방역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부대원들의 헌신

성공적인 작전의 배경에는 현장방역작전팀원들의 헌신이 숨어 있었다. 화생방대대 정규화(중사) 행정보급관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22일 결혼식을 올리고도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다. 원래는 결혼식 다음날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지만 방역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무기한 연기했다. 정규화 중사는 “코로나19 방역작전으로 인해 신혼여행을 못 가게 돼 아내에게 미안했다”면서도 “여행 예정이었던 유럽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방역작전에 나선 것이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해외 시민권을 갖고 있음에도 자원입대한 같은 부대 박민수 일병도 방역작전에 동참하고 있다. 박민수 일병은 부모님이 30년 전 이민한 콜롬비아에서 태어나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를 다니던 중 지난해 11월 자원입대했으며 주 3~4회 방역작전에 참여 중이다. 박민수 일병은 “현재 상황이 인생에서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어진 임무와 훈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사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김광은 중령은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코로나19가 확실하게 없어질 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나중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제1장

최전선을 지킨 사람들

의료지원 :
대구병원 자원 해군포항병원
신임 간호장교 장근창 소위
대구병원서 3교대 하며 환자 돌봐...
감사 편지에 피로 눈 녹듯 '스르르'

38일간의 사투 마치고 복귀
레벨D 방호복 차림 근무
격리 환자 더욱 가까워서 돌보지 못한 아쉬움 남아

“너는 내 아들이지만 국가의 아들이기도 하니 국가에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다. 환자들을 위해 네 소임을 다하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군간호사관학교(국간사) 졸업과 동시에 대구로 향했던 장근창 해군소위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어머니께서 해주신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근창 소위는 국간사 60기 동기생 74명과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38일간의 국군대구병원 파견 임무를 마치고 복귀했다.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장근창 소위는 4월 27일부터 해군포항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근창 소위는 해군포항병원 부임 첫날 국방일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 코로나와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장근창 소위는 국간사에서 임관 전 교육을 받으며 3월 9일로 예정된 임관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대구에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접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관식이 일주일 앞당겨졌고, 급하게 대구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간호장교로서 국가적 의료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국군대구병원은 지난 2월 23일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당시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밀물처럼 병원으로 몰려들었다. 신임 간호장교들은 국민을 살려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뚝뚝 땀을 흘리며 대구로 달려갔다.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와의 전쟁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다. 22세 청년 장근창

3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38일간 국군대구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한 장근창 해군소위가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한 모습. ©해군제공





국군대구병원에서 장근창 소위를 비롯한 신임 간호장교들이 선배 간호장교로부터 의료 지원 임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해군제공

소위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감염병과 사투를 벌였다.

장근창 소위는 낮선 대구병원에서 주간·낮·야간 3교대로 근무하며 환자 입원 수속, 병동 음압체크, 투약 및 복약 안내, 폐기물 처리, 스테이션 환경소독, 지정시간별 환자 체크, 퇴원 간호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하루 평균 15명의 환자를 돌봤다.

“레벨D 방호복 차림으로 두 시간 근무하고 두 시간 쉬고 다시 두 시간 근무하는 식으로 하루 여덟 시간씩 일했어요. 상황이 긴박했던 만큼 처음 열흘 동안은 열두 시간씩 2교대로 근무했습니다. 방호복 안은 항상 땀으로 젖었고, 고글에 습기가 차 힘들었어요. 마스크 때문에 코와 귀에 통증이 심했지요. 나중엔 스킨테이프도 붙이고 요령이 생겼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는 환자들을 가까이에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장근창 소위를 더 힘들게 했다.

“병동 자체가 격리실 개념이었고 출입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환자와 문자나 전화로 소통해야 했습니다. 환자들의 문제를 직접 만나서 해결해드리지 못한 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보람을 느낀 순간은 많았어요. 그중에서도 퇴원한 환자로부터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았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환자들을 보살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근창 소위는 국군대구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군대구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밤낮으로 노력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100병상도 되지 않던 대구병원을 짧은 기간에 300병상으로 확장해 환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병상이 마련됐어도 의료지원 인력들이 병원 운영 프로토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의료인뿐 아니라 방역을 담당했던 수많은 장병과 의료기사 등 모두의 노력이 더해졌기에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장근창 소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시간이 흐를수록 느슨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자칫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봄나들이로 외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조금 더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의료진들의 희생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장근창 소위는 ‘남성’ 간호장교의 존재를 여전히 낮설어하는 대중의 인식



장근창 해군 소위. ©해군제공

에 대해선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해 임관하고 나면 여성 동료들과 같은 임무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수행하게 된다”며 “남자라는 성별보다는 한 명의 간호장교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소위는 새로운 근무지에서 임무 수행을 시작하는 간호장교로서 각오의 말을 남겼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집단생활이 주를 이루는 군에서의 방



장근창(뒷줄 왼쪽 다섯째) 해군소위가 국군대구병원 휴게실 앞에서 동료 간호장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해군제공

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함대에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해군 함정 방역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킬 방안을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또 국가적 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달려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제1장

최전선을 지킨 사람들

방역지원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시설방역팀 윤진호 중위

공기안 통하는 방역복에 호흡기 달고 임무 수행...
“생수 건네고 눈물 흘리던 시민들 격려에 힘냈죠”

한 달여간 방역작전

대구·경북 등 전국 각지 투입
공항·기차역·대학교 등 방역

3월 초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이 확산하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화생방사)는 이 지역의 방역지원을 위해 긴급히 도로건물방역팀과 시설방역팀으로 특수임무대를 편성했다. 또 서울·수도권 지역에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 방역작전을 펼쳤다. 화생방사 모든 요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로 코로나19 극복과 예방에 굳은 땀방울을 흘렸다. 화생방사 시설방역팀 조장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투입된 윤진호 중위도 마찬가지였다. 방역팀의 일원이자 리더로서 치열하게 방역작전을 수행했다. 현재 예방적 자가격리를 마친 뒤 예방관찰 기간을 보내고 있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시설방역팀 윤진호 중위
©부대제공

는 윤진호 중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윤진호 중위가 대구·경북 지역에 투입된 때는 3월 3일이었다. 화생방사 특임대 시설방역팀 조장으로 파견돼 4월 7일까지 한 달여간 방역작전을 수행했다. 대구·경북 지역 주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내부를 방역했다. 윤진호 중위는 현장투입 당시의 각오를 여전히 잊지 않고 있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해야 코로나19의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팀원들도 같은 생각이었고, 모두 같은 마음으로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화생방사는 이 기간 전국 각 지역에서 취약 지역·시설과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집중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공항과 기차역을 비롯해 국가지정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 진료소, 확진자 발생으로 장기간 폐쇄된 경북대학교와 집단 확진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됐던 한마음아파트 방역작전에도 요원들을 투입했다.

윤진호 중위는 그중에서 한마음아파트에서의 방역작전을 기억에서 끄집어냈다. 윤진호 중위는 당시 상황에 대해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장소였기에 긴장감이 크게 들었다”며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했고, 방역도 더욱 세심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윤진호 중위와 팀원들은 공기가 통하지 않는 불침투성 방역복을 착용하고 약 60kg에 이르는 과산화수소 이온 발생 방역 장비를 어깨에 댔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라서 전 층을 계단으로 걸어서 오르내리며 방역했다.

체력적으로 부담감이 컸을 것 같았다는 질문에 윤진호 중위는 “방역복에 부착된 공기호흡기는 그마저도 40분이면 소모돼 오랜 시간 임무를 할 수 없



양압식 호흡기를 착용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시설내부방역팀 요원들이 4월 20일 국군대전병원 방역작전에 나서 과산화수소 이온 발생 방역장비를 활용해 정밀제독을 하고 있다. ©부대제공

고 여러 차례 오르내려야 했던 점이 힘들었다”며 “방역복 안은 땀으로 가득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진호 중위는 지치지 않았다. 지칠 수도 없었다. 윤진호 중위를 비롯한 화생방사 방역팀에게 시민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기 때문이다. 상호 안전을 위해 시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었지만, 시설 방역 전 내부 구조 및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난 시민들은 어김없이 감사 인사를 보냈다. 생수를 건네거나 눈물을 흘리는 시민도 있었다고 한다. 마주하지 못한 시민 대부분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었다.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눈빛에서 전해오는 진실한 마음을 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크게 느꼈고, 시민들을 위해 한순간도 모자람 없이 한 곳이라도 더 방역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진호 중위는 최근 국군대전병원에서 방역작전을 펼쳤다. 4월 초 대구·경북 지역에서 임무를 마치고 열흘 만에 곧장 방역 현장에 또다시 투입된 것이다. 국군대전병원의 생활화 방역 전환에 대비하고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배제한 환자 진료·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역이었다.

윤진호 중위와 방역팀은 코로나19 검사실과 병상 등 국군대전병원 내부 33개소에 걸쳐 방역을 진행했다. 이미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방역작전 경험이 있었기에 임무 수행은 순조로웠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방역작전을 펼치는 이 순간이 국민을 위해 또 장병들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윤진호 중위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점점 완화되는 시점이었지만, 결코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역복은 공기가 통하지 않는 불침투성이며, 방역 장비 무게는 약 60kg에 이른다.
©부대제공



지난 3~4월 두 달여에 걸쳐 윤진호 중위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틈이 없었다. 국군대전병원 방역작전을 완수한 지금은 예방적 격리 기간을 거쳐 부대에 복귀해 예방관찰 기간을 갖고 있다. 윤진호 중위는 고단했을 그 시간이 되려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지금까지 잘 견뎌내고 이겨낸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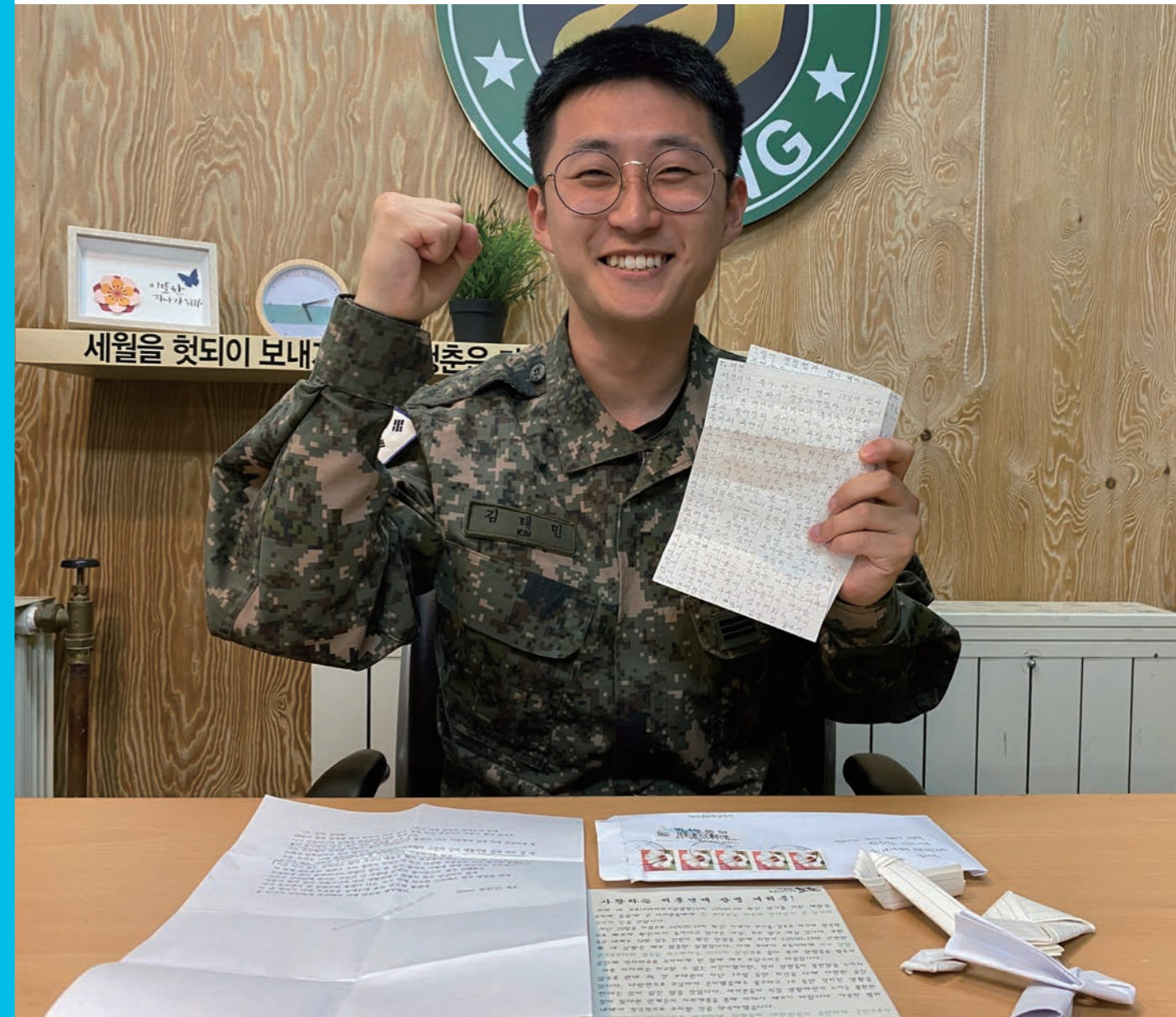
“화생방사는 최고의 전문요원들이 모인 화생방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 일원으로서 현장에 투입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결코 완수할 수 없는 임무였습니다. 사령관님 이하 전 요원이 한뜻으로 작전을 수행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이겨내고 있고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제1장

최전선을 지킨 사람들

예방적 격리 이겨낸
육군 51사단 전투지원중대
김태민 상병
빈자리 채워준 전우...
그들의 따뜻한 격려에 더 강해집니다

2주간 예방적 격리에 마음 편치 않아
미안함·불안함 극복하며 외로운 싸움
중대장·전우들 6통 편지에 가슴 먹먹
부대원들의 격려·배려·응원에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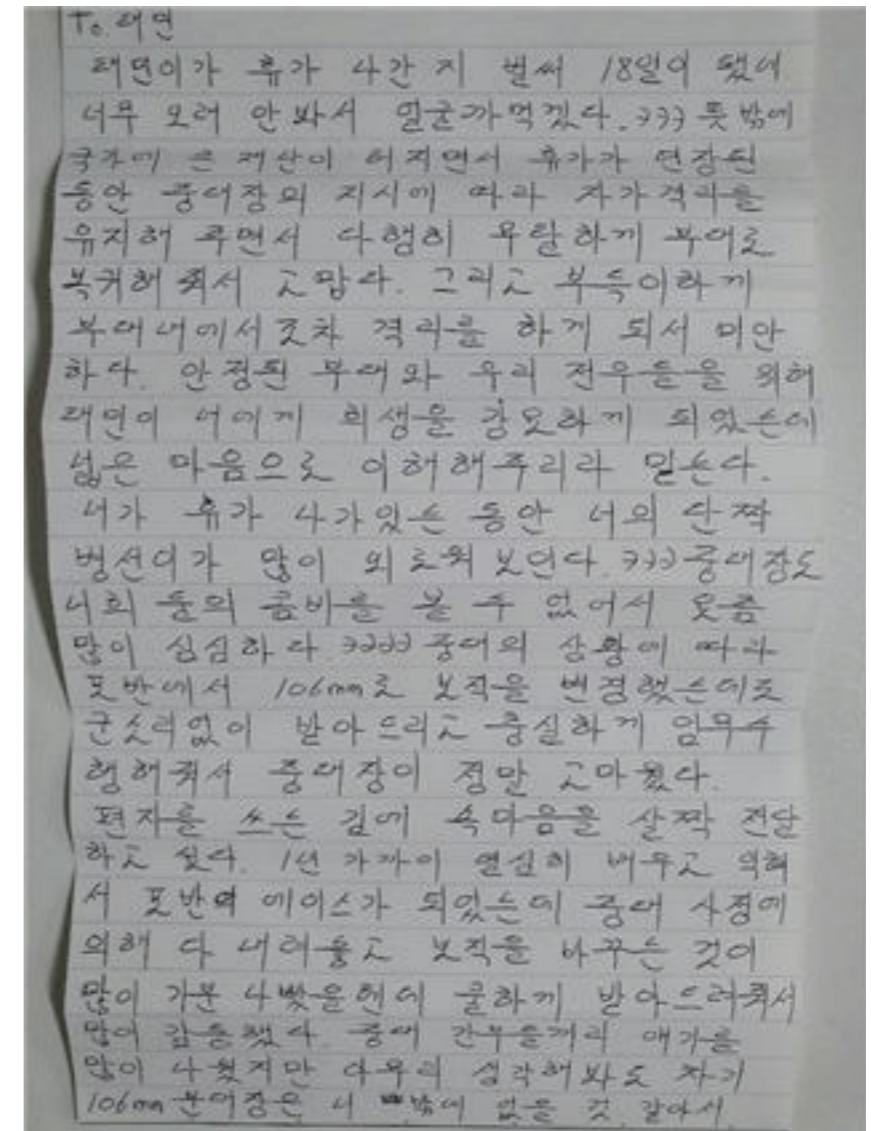
육군51사단 전투지원중대 김태민 상병이 중대장·전우들이 보내준 편지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대제공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최전선의 사투만큼이나 치열한 싸움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각급 부대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 부대원들의 감염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고자 예방적 격리를 견뎌내는 장병들과 한마디 불평 없이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부대원들이 이 중요한 전투의 주인공들이다. 전우들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로 예방적 격리 기간을 끈끈이 이겨내고 현재 맡은 바 임무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육군51사단 전투지원중대 김태민 상병의 사연을 소개한다.

김태민 상병은 지난 2월 20일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부산으로 휴가를 갔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3월 1일 부대 복귀를 기다리던 김 상병은 SNS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자신이 방문했던 부산 서면의 한 노래방이 확진자 동선과 일치했던 것. 이에 김태민 상병은 즉시 부대로 연락을 취했고, 3월 8일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괜히 죄를 지은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감염의 불안감도 있었고, 나 없이 고생할 부대원들에게도 미안했죠. 다행히 중대장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어요. 일주일 내내 철저히 자가에서 머무르며 단 한 번도 외출하지 않았죠.”

김태민 상병은 3월 8일 부대에 복귀했지만 그리운 전우들과는 만날 수 없었다. 휴가에서 복귀한 용사들은 즉시 동원예비군 시설에 임시로 마련된 예방적 격리시설에서 2주간 생활해야 했기 때문이다. 여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방 하나에 용사 1명이 배정됐다. 평소 전우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인 김태민 상병은 넓은 공간에서 홀로 장기간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다. 자신 때문에 경계근무에 더욱 자주 투입



육군51사단 전투지원중대 김태민 상병이 2주간의 예방적 격리 기간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된 중대장의 격려편지. ©부대제공

돼야 하는 부대원들에게도 미안했다.

한숨을 내쉬던 김태민 상병은 생활관에 있던 개인 짐이 전우들의 손으로 깔끔하게 정리돼 방안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곳에 중대장과 전우들이 써준 편지 6통도 놓여 있었다. “잘 지내라, 힘내라, 보고 싶다, 빨리 돌아와라.” 편지에 적힌 부대원들의 응원 메시지였다. 편지 옆에는 간부들이 선물한 초콜릿과 과자가 가득했다.

예방적 격리자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고생할 전우들이 혹시나 자신을 원망할까 봐 애태웠던 김태민 상병은 격려 편지를 읽고 가슴 먹먹한 감동을 느꼈다고 한다.

“이틀에 한 번꼴로 투입되던 경계근무가 하루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된 상황이지만, 전우들이 저를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격려 편지가 정말 마음에 큰 위로가 됐어요. 읽고 또 읽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부대원들의 격려로 큰 힘을 얻었지만, 격리생활은 쉽지 않았다.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화장실, 식사 수령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잠시 복도로 나가야 할 때도 사전에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해 다른 격리자들과 절대 만나는 일이 없었다. 격리 생활의 답답함, 감염됐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부대원들에 대한 미안함. 김태민상병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하고자 2주 내내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긴 격리 기간이 끝나고, 3월 22일 복귀 날이 찾아왔다. 2주 동안 발열 증세 등 감염 징후는 전혀 없었다. 새벽같이 기상한 김태민 상병은 격리 해제 즉시 그리운 전우들이 있는 생활관으로 달려갔다.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었어요. 주말에는 보통 전우들이 늦게 일어나는데 그날은 모두 일어나 있더군요. 돌아온 저를 반겨주기 위해 서였죠. 사실 고생한 건 전우들인데 저에게 힘들지 않았냐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것이 너무도 고마웠어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은 많은 아픔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비 온 뒤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듯,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부대원들 의지는 한층 강해지고, 전우애는 더욱 끈끈해졌다. 마지막으로 김태민 상병은 “큰 희생을 묵묵히 견디며 제 빈자리를 채워준 전우들, 격려와 응원으로 모든 격리자를 따뜻하게 돌봐주신 중대장님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다”며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통해 더 강해졌고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당차게 말했다.

제1장

최전선을 지킨 사람들

의무사 진단키트 주역 국군의학연구소 노경태 박사 적은 시료로 빠르고 정확한 진단키트 개발

핵산 증폭 2시간서 20분으로
휴대 편한 등온증폭기기 활용
국민의 군 넘어 인류 의학 기여
“찾은 돌연변이 대비 연구 계속”

“지금도 우리 군은 코로나19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진단기술이 널리 상용화된다면 더 신속한 환자 선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죠. 이 기술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국군 의무사령부 국군의학연구소 노경태 박사)



코로나19 진단 기술 ‘역전사 고리 매개 등온증폭법(RT-LAMP)’을 개발한 국군의학연구소 노경태 박사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연구 시연을 하고 있다. ©국군 의무사령부 제공

전쟁이나 질병 같은 인류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낳는 원동력이 되곤 한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역경을 딛고 일어나려는 의지는 종종 전혀 예상치 못한 혁신의 결과물을 발현시켰다. 특히 전염병은 의학 기술의 놀라운 진보를 이뤄내는 마중물이 되기도 했다.

현대 의학이 자리 잡은 이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코로나19 역시 새로운 의학 기술 발전의 계기가 됐다. 미증유(未曾有)의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은 현재 백신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유형의 바이러스라는 코로나19의 특징으로 더더진 진단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발된 코로나19 진단 기술 ‘역전사 고리 매개 등온증폭법(RT-LAMP)’은 적은 시료로 기존 진단 기술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진단 기술을 개발한 주체는 바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군이다. 코로나19 진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군’을 넘어 인류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군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한 국군 의무사령부 국군의학연구소 노경태 박사는 “말은 바 소임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연구자다운 소감을 전했다.

RT-LAMP는 4월 20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을 받았다. 코로나19 진단 기술로는 첫 사례다. 특허청은 “RT-LAMP는 그동안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사용된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 검사법보다 적은 시료를 사용하면서도 진단 정확도는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노경태 박사는 여기에 “휴대가 편한 등온증폭기기를 활용해 이른 시간에 병원체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선 검역기관의 현장 초동 대처 활용이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긴급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응급수술, 분만 등 시급한 경우의 코로나19 진단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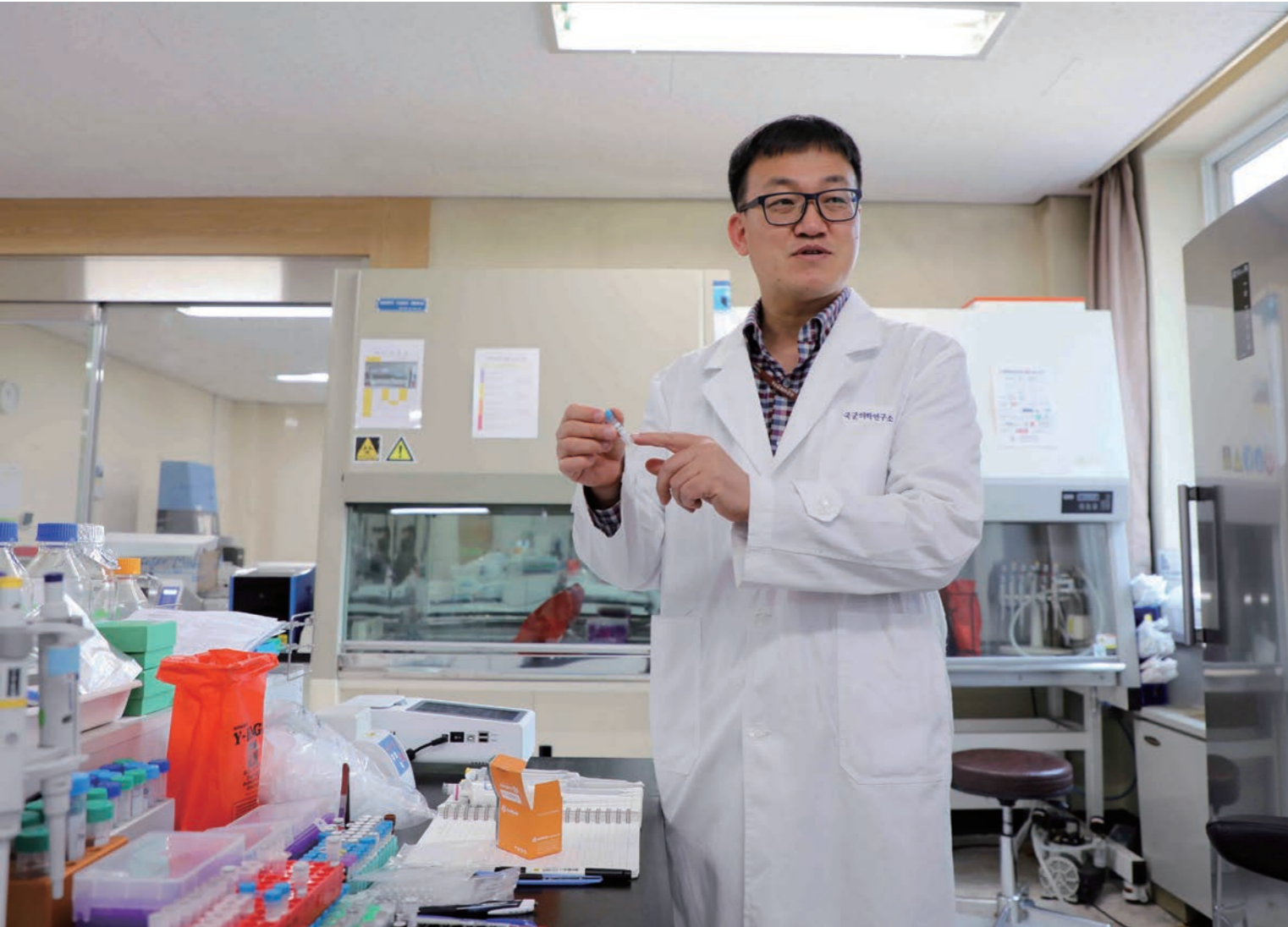
RT-LAMP는 현재 코로나19 진단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RT-PCR과 유사하다. 환자의 타액이나 코, 목구멍 등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식별해 감염 여부를 판별한다. 다만 RT-PCR의 경우 온도 변화를 통해 핵산(RNA)을 증폭시키지만 RT-LAMP는 동일한 온도에서 핵산을 증폭시킬 수 있다.

RT-PCR이 핵산 증폭에만 2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반면 RT-LAMP는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RT-PCR과는 달리 간단한 이동형 등온증폭기기만 있으면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다.

이 기술의 핵심은 ‘고리 매개 등온증폭 핵산증폭법(LAMP)’이다. 노경태 박사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군은 대부분 현장 임무 수행을 맡았다”면서 “사단, 연대, 대대급은 물론 일부 군 병원 역시 PCR 장비나 가용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야전 휴대가 쉽고 신속탐지와 육안탐지가 가능하며 사용이 편리한 현장진단법을 개발하기 위해 LAMP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경태 박사에 따르면 LAMP는 일본 화학회사가 20여 년 전 개발한, 상당히 오래된 기술이다. 하지만 이 기술은 여전히 다양한 응용을 통해 활용되고 있다. 그는 “국군의학연구소 연구진은 2017년부터 등온증폭에 대한 기반 기술을 확립해 왔다”며 “그 결과 지금까지 말라리아, 아테노바이러스, 중증 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등 군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환들에 대한 특허 등록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군의학연구소가 구축해 둔 LAMP 기반 기술이 이번 기술 개발의 토대가 됐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다. 노경태 박사는 “LAMP 기술은 신속성을 갖춘 대신 위양성(偽陽性·거짓 양성)이 다소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국군의학연구소 노경태 박사. ©국군외무사령부제공

어 “이 때문에 위양성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짧은 시간에 어려운 일을 해냈지만 노 박사의 연구는 계속될 예정이다. 그는 “코로나19는 돌연변이가 잦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에 대비해 코로나19 수백여 개의 전장 서열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LAMP 프라이머와 진단키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경태 박사는 기술 개발의 공을 동료들에게 돌렸다. 그는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 석웅(육군준장) 의무사령관과 박규은 국군의학연구소장,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소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지금도 코로나19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개발 초기부터 지금까지 도움을 준 이원식·최지은 연구원에게도 인사를 잊지 않았다. 묵묵히 자신을 뒷받침해준 부모님과 장인·장모, 아내, 두 딸에 대한 애뜻한 마음도 전했다.

노경태 박사는 마지막으로 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제언도 내놓았다.

“국군의학연구소는 임상학과 기초의학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진 기관입니다. 앞으로 생물안전3등급시설 건립과 인력보강 등 연구 인프라가 확충된다면 잠재적 위협인 생물작용제 13종을 포함한 포괄적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제1장

최전선을 지킨 사람들

국군의무사 방역대책본부 하범만 통제처장

인력 · 장비 적재적소에...
100% 역량 ‘컨트롤타워’

메르스 사태 차단 경험 있어 중책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됐기에 가능
아직 긴장의 고삐 늦춰선 안 돼
종식 때까지 지원 멈추지 않을 것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는 전국 13개 병원과 국군의무학교 · 국군의학연구소 등 17개 부대로 구성된 군(軍) 최고의 의료기관이다. ‘장병과 국민이 신뢰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의료서비스 구현’이라는 목표 달성에 혼신을 힘을 다하는 부대는 코로나19 극복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부대의 기능과 역량을 통합한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의료 인력 · 장비 · 시설을 효율적이면서도 적시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다. 의무사 보건운영처장 겸 방역대책본부 통제처장 임무를 수행하는 하범만 육군대령을 만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노력을 들어봤다.

현장 의료진 원활한 임무 수행 여건 지원

“방역대책본부 근무가 아무리 힘들어도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군 의료지원 장병만큼은 아닐 겁니다. 방역대책본부는 그들이 부여된 임무를 원활히, 완벽히, 건강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할 것입니다.”

의무사는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이를 예의 주시했고, 올해 1월 6일 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이어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고, 질병관리본부가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함에 따라 방역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군 내 유입 차단과 국가적 확산 방지에 일조한 경험이 있는 하 대령은 통제처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통제처장은 의무사령관을 보좌해 방역대책본부의 전반적인 기능을 조정 · 통제합니다. 특히 인천공항 검역 인력 파견, 국군 대전 · 대구병원의 국가감염병전담병원 기능 전환, 귀국 교민 격리

시설 의료지원, 재외국민 화상 의료상담을 총괄하는 등 의무사령부의 역량을 집중하는 데 작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군대구병원 임무 전환 가장 기억에 남아

의무사 방역대책본부는 4월 30일 운영 100일을 맞았다. 주요 항만·공항 검역지원, 국군 수도·대전·대구병원 확진자 입원치료, 중국·이란·이탈리아·스페인 입국 교민 격리 시설 의료지원 등에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를 조정·통제하느라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였다. 신속한 검체 채취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을 도입하고, 육군훈련소처럼 동시에 대량의 검체를 채취·검사해야 하는 집단의 전수조사를 위해 검체취합기법(Pooling)을 적용한 것도 호평을 받았다. 하 처장은 여러 성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국군대구병원을 단기간에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한 것을 손꼽았다.

“많은 분이 불가능한 일이라던 국군대구병원의 임무 전환을 7일 만에 성공시켰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98개의 음압병상을 300여 개로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군(軍)이라는 이름으로 한마음 한뜻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군대구병원 임무 전환에 헌신한 장병과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 24시간 예의 주시

우리 군은 코로나19 사태를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국민과 장병의 안전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의무사 방역대책본부도 마찬가지다.



국군의무사령부 보건운영처장 겸 방역대책본부 통제처장인 하범만(왼쪽) 육군 대령이 부대원들과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종원

방역대책본부는 통제처장, 통제과장, 상황장교가 24시간 코로나19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예방의학처, 보건운영처, 기획발전처, 인사행정처, 의무작전처, 의무군수처 등 기능별로 1~2명의 인원이 상주하며 지원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

를 취하고 있다.

“의무사령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각 군 병원에서 의료요원을 선발해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또 국군 대전·대구병원이 국가감염병전담병원 임무를 수행하면서 충청·경상도 지역에서 일반 진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장병에 대한 의료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기에 육군과 해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육군2작전사령부 의무실을 외래 전담병원으로 운영해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전 군 병원이 확대 진료를 시행하면서 평일에 진료를 받지 못한 장병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국민·장병 건강지킴이 임무 완수

5월 4일을 기준으로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9명이다. 이 중 38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5월 3일에는 사망자 ‘제로’를 기록했다. 범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 군 장병의 헌신·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군의 의료지원 역시 쉽표 없이 전개될 예정이다.

“4월 28일부로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의 국가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됐지만 군은 언제든지 다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의무사령부는 확진자가 대량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전방 지역 군 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즉각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코로나19는 반



국군대구병원에서 군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고 진료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양동욱

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의무사령부는 그날까지 헌신적인 의료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군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장

최전선을 지킨 사람들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보건정책과,
국방신속지원단, 병영문화혁신팀
정책 결정부터 현장지원까지...
'0.01% 기적' 이끈 숨은 헌신 있었다



5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국방부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이주용(왼쪽 둘째) 총괄팀장이 직원들과 코로나19 현황을 논의하고 있다. ©조용학

코로나19가 국가적 고민거리로 떠오르기 시작한 지난 2월, 군은 코로나 19로부터 가장 취약한 집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받았다. 수많은 장병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군으로서 '감염병의 온상'이 되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2월 21일 군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여 일 뒤인 현재 우리 군은 그 어느 조직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장병은 39명. 60만에 육박하는 장병의 0.01%도 되지 않는 비율이다. 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방역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최일선에 섰다. 자체 방역은 물론 ‘국민을 위한 군’으로서 사명을 다한 군의 헌신은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굳건한 모습으로 국민을 지켜낸 원동력은 일선 현장에서 흘린 장병들의 구슬땀이었다. 하지만 이런 헌신 뒤에는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국방부 각 부서들의 노력이 숨어 있다. 전국 각지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현안들을 숨 가쁘게 처리한 국방부 역시 또 다른 전장(戰場)이었다. 국난으로 평가받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방부 모든 부서는 그동안 총력을 동원해왔다. 지금부터 그 가운데 일선 현장과 호흡하며 장병·국민의 생명을 위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간호장교가 졸업·임관식을 마친 뒤 대구지역의 의료 지원을 위해 차량에 짐을 싣고 있다. ©양동욱



국군수송사령부 소속 수송전담팀이 충남 논산시 UPC논산물류창고에서 대구·경북지역에 지원할 정부지원 의료물자 마스크 등을 차량에 옮기고 있다. ©이경원

해 헌신한 부서들의 활약을 먼저 소개한다.



인사기획관리과 문호성(육군중령·사진) 인사기획총괄 ©조용학

인사기획관리과

'쌍방향 소통'으로 효율적 정책 결정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주요 정책 결정과 우리 군의 방역 인력 지원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2월 장병 휴가·외출·면회를 제한하고 '코로나 비상'이 걸렸던 대구 지역 부대를 한시적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는 등 군 내 유입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우리 군의 감염 최소화를 이끈 '군 자체 예방적 격리 기준'도 인사기획관리과와 보건정책과의 협업의 산물이다. 이 밖에도 주요 감염 경로 분석

을 통해 선제적 고강도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오랜 시간 통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병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맞춰 적시에 군 인력을 지원하기도 했다. 인사기획관리과 문호성(육군중령·사진) 인사기획총괄은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준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방역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적정한 인원이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쌍방향 소통'이



경기도 양주시 육군72사단 장병들이 코로나 블루 극복 차원에서 부대 활동을 하고 있다. ©조용학

이뤄졌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현장에 있는 각 군 본부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하고 수차례 의견을 조율해 정책을 결정, 각 군에 지침을 하달했다. 현장과 충분한 교감을 거쳐 수립된 정책은 지침 하달과 동시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국면에 돌입했지만 인사기획관리과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문 중령은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월 8일부로 장병 휴가가 시행되고 간부들의 출타 등도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확진자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과 의료대책을 수립했다”며 “장병들도 생활방역 기본수칙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이행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정책과 김민관(해군소령·사진)
예방의학담당 ©조용학

보건정책과

신임 간호장교 투입 등 군 의료정책 수립 핵심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의료 부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았다.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안보 위협은 앞으로 보건정책과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5월 3월부터 ‘풀링(Pooling) 기법’으로 불리는 검체 취합 검사법을 활용, 대규모 인원의 신속한 코로나19 진단을 실시했다. 4명의 검체를 섞어 한꺼번에 검사를 하는 이 아이디어는 국군의학연구소가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대량 검사를 위해 고안한 데서 비롯됐다. 생소한 방식에 대

한 우려도 있었지만 풀링 기법은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도입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은 국방부의 대담한 결정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보건정책과는 특히 군 내 감염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3월 초에는 감염 위험도와 부대 임무 등을 고려, 상황별 보건용 마스크 기준을 검토, 합리적인 마스크 보급 수준을 설정했다. 이런 노력은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코로나19 관련 각종 예방지침과 병영생활 수칙, 고위험 시설 집중 관리지침, 시설별 관리지침 등 군 특성을 반영한 대응 방안도 내놓았다.

호평을 받았던 우리 군의 의료지원도 총괄했다. 먼저 2월 초부터 국가감염병전담병원에 군 병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신임 간호장교, 신규 임용 군의관, 공보의 등 의료인력의 임용교육을 조정해 특별재난지역 등에 투입, 코로나19 극복에 가장 먼저 앞장서는 군의 모습을 확립하는 데 힘썼다. 특히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구로 향했던 신임 간호장교들의 헌신은 국민의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또 전국 공항과 항만 검역소, 교민 임시생활시설, 대구지역 환자 진료,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도 군 의료인력을 투입해 치료에 앞장섰다. 중국 등에서 귀국해 임시 격리된 교민들을 위해 이동진료소를 지원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보건정책과가 의료인력 지원을 넘어 이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건강상태 모니터링 앱’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건정책과 김민관(해군소령·사진) 예방의학담당은 “현장 의료인력의 건강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과 전우들의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국방신속지원단

유관기관-지자체 잇는 원스톱 체계 구성

국방부는 지난 3월 12일 코로나19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구성했다. 바로 이복군 군수관리관을 단장으로 한 ‘국방신속지원단’이 그것.

신속지원단은 방역, 수송, 물자, 시설, 복지지원 등 5개 지원팀으로 구성



재난관리지원과 심홍기(육군
중령·사진) 재난대책담당
©조용학

됐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각 지역의 지원 소요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수단 운용을 통합하는 등 신속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신속지원단은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의 지원 요청에 따라 전담부대를 지원하고, 지역책임부대의 협조 범위를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소요를 신속히 지원하는 임무도 맡았다. 신속지원단 구성에 한 축을 담당할 재난관리지원과 심홍기(육군중령·사진) 재난대책담당은 “코로나19 상황은 산불·태풍 등 기존의 재난과 달리 마스크 제작·운송·판매,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유관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었다”며 “또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방역 소요가 집

중돼 지역책임부대만으로는 방역이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방역물자 해외운송을 위해 공군 C-130J 수송기 2대를 미얀마로 투입한 일은 신속대응단의 존재감을 드러낸 대표적인 예다. 우리 군 수송기가 처음으로 해외물자 운송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면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방부·외교부가 미얀마 정부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있었다. 심 중령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국방부와 외교부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도록 협의를 진전시켜 나갔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마스크 대란’ 극복 과정에 동참하고 민간이 기피하는 대구·경북 지역 수송에 앞장서는 등 ‘국민을 위한 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심 중령은 “국방부는 지금도 50여 개 지자체에 군 협력관을 파견해 방역·소독, 방역물자 수송, 영농활동 지원 소요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조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해 국민이 완전한 일상으로 돌

아가는 시점까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가용한 인력, 장비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는 각오를 전했다.

병영문화혁신팀

유연한 대응으로 안정적 부대 관리 견인

코로나19는 장병들의 일상을 크게 바꿨다. 변화는 늘 위기를 수반하기 마련. 국방부 병영문화혁신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최종 목표와 동시에 장병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반작용을 최소화하는 큰 역할을 맡아왔다. 병영문화혁신팀은 먼저 군 내 코로나19 감염 유입 차단을 위한 장병 복무지침을 마련했다. 초기 단계인 1월 말~2월 말에는 확진자 발생지역과 이동동선을 고려해 장병 이동통제지역을 선정, 해당 부대의 외출·외박·면회를 통제했다. 이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된 2월 말부터는 전 장병의 출타를 통제하는 강도 높은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전역을 앞둔 장병과 청원휴가가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한 여지도 마련했다. 코로나19가 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 4월 24일부터는 출타 통제 장기화에 따른 고립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외출을 시범 허용했고 5월 8일부터는 휴가를 허용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부대 관리를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병영문화혁신팀 이양수(육군중령·사진) 병영문화혁신추진담당은 “주요 상황



병영문화혁신팀 이양수(육군중령·
사진) 병영문화혁신추진담당
©조용학

별로 적용해야 할 휴가 종류를 지침화했고, 비상대기체계·유연근무제 등 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복무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출타 통제가 길어지면서 쌓일 수 있는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놓았다. 격리장병 휴대전화 지급과 격리기간 영상통화 허용은 격리장병들이 불안감을 떨쳐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 중령은 “4월 8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 병 일과시간 이후 영상통화 역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고 병사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조성했다”고 전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부대운영 적극 시행 지침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각 부대는 조깅 등 동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장병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말 치킨데이’, ‘이 스포츠(E-Sports) 경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했다. 또 사이버지식정보방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시간도 확대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영상·유선 상담지침도 마련해 장병들의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활동도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지역에는 민간 확진자들의 심리상담을 위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13명을 지원, 3월 한 달 동안 8500여 명의 상담을 실시해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

병영문화혁신팀은 안정적인 부대관리를 위한 각종 사고예방에도 힘을 기울였다. 해외영주권 유지가 필요한 장병 70여 명을 위한 지원, 출타통제 등 복무관리 분야 민원 처리도 병영문화혁신팀의 몫이었다. 이 중령은 “군내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동시에 장병들의 마음을 돌보고 안정적인 부대관리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장

최전선을 지키는 사람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특별 기고 軍, K방역 핵심모델...대한민국 자긍심 드높였다

군내 감염 최소화·정부 방역에도 앞장
공항·항만 등 연인원 17만여 명 지원
의무사는 국내 첫 진단기술 특허
국간사 신임 장교 대구행 감동도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국방부제공

5월 3일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가운데 개인의 위생수칙 생활화 등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신천지라는 돌발변수로 코로나19 오염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던 두 달 전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국가적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의미 있는 방향 전환이다. 특히 투명성·개방성·자율성을 핵심 기조로 하는 ‘K방역모델’의 성공은 향후 상당 기간 인류와 동행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대응 방향에 있어 전 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아직 코로나19 종식을 논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우리 군의 주요 성과를 정리해 보고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를 살펴본다.

4월 29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72일 만에 0명을 기록했다. 한때 7000명을 웃돌았던 치료 중 확진자 수도 1400명 이하로 감소해 현장 의료진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던 국군대전병원과 대구병원도 다시 군 병원으로 전환됐고, 전국 곳곳에 설치돼 있던 경증환자 치료용 생활치료센터도 속속 폐쇄되고 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완연한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언제

든 2차 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만으로도 K방역모델의 성공이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이 K방역모델의 핵심에 우리 군이 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전시에 준한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군내 감염 최소화와 정부 방역 활동 적극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군은 전투력 보존을 위한 군내 감염 최소화라는 최우선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있다. 지난 2월 21일 군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시행된 외출·외박·휴가 통제를 시작으로 방역당국 기준을 뛰어넘는 예방적 격리 시행, 재택근무를 포함한 과감한 비상근무태세 도입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통해 군내 감염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 군내 확진자는 지난 2월 27일까지 최초 7일간 26명이 발생했지만 이후 현재까지 13명 발생에 그쳤으며 특히 지난 3월 22일 39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에는 신규 확진자 0(5월 7일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군은 이런 자체방역뿐 아니라 정부 방역활동 지원이라는 임무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7일 전국 공항 및 항만 검역소에 100여 명의 검역 요원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국가 방역 활동에 군 의관, 간호장교, 방역 및 행정지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총 지원인력은 지금까지 연인원 17만여 명에 달한다.

또 대구·경북지역의 폭발적 감염 확산으로 병상과 의료인력이 절대 부족했던 3월 초에는 국군대구병원을 신속한 병상 확장 공사를 거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군의관과 간호장교는 물론 군사교육을 받아야 할 군의관 후보생이나 공중보건의로도 발 빠르게 지원했다. 특히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입 간호장교 75명은 졸업·임관식을 앞당기고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뒤로 미룬 채 대구병원으로 긴급 투입돼 국민적 감동을 주면서 대

구·경북지역 안정화에 큰 힘을 보탤다.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진단기술 특허등록도 국군의무사령부의 몫이었고 국군의학연구소에서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대량의 검사를 위해 고안한 검체 취합 검사법(Pooling method)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검사방법으로 공식 채택했다. 육군 군의관은 코로나19 자가진단 앱과 중증도 진단 앱을 개발해 무료 배포했다.

정리해 보자면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 군은 스스로를 튼튼히 지키는 물론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군 본연의 임무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냈다. 그간 일부의 우려가 무색하게 우리 군이 평소 매우 기강이 잡혀 있고 준비된 조직임을 성과로서 입증한 사례라 본다.

한편 이러한 성과와는 별개로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은 향후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군 차원에서 보완해야 하거나 새롭게 고민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게 던져 줬다.

우선 포괄안보 차원의 국가적 대응태세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는 테러 등으로부터 상대적 안전지대에 있다 보니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이나 질병 등도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줬다. 감염병 위기단계별 우리 군의 대응태세나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군의 전투력 보존 방안, 의약품이나 장비 준비 정도 등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보완이 시급하다.

둘째 유사시 환자 치료나 격리자 수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응 초기 우한 교민 수용이나 대량의 경증 환자 치료 등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여건을 갖춘 격리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감염병이다 보니 실별로 독립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했지만 군 시설의 경우 그런 여건을 갖춘 곳이 드물었고, 심지어는 군 병

원조차 개방 병동 형태가 많아 감염병 환자 치료에 적합하지 않았다. 유사시 대응에 가장 적합한 조직은 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의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군에 다목적 비상상황 대비용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시설을 군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이나 시설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지자체 등과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겠다.

끝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달라질 세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개인에게든 국가에게든 이전과는 많이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작게는 개인의 생활양식 변화로부터 크게는 국제질서의 재편 가능성까지 그 변화의 폭과 깊이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문제를 찾는 것도, 답을 구하는 것도 각 주체의 몫이다. 무슨 문제가 있을지 빨리 찾아내 준비하는 조직은 앞서 나가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뒤처질 것이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전 인류적으로도 전례가 많지 않은 이번 사태에 있어 우리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기조로 한 기민한 대응으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과 역량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된 것도 또 다른 큰 소득이다. 이런 성공의 경험과 국민적 자긍심은 코로나19 이후의 신질서 형성 과정에서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믿는다.



제2장

다양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

전국 공항 등 21개소 군 의료인력 100여 명 투입
코로나19 확산 방지·軍 유입 차단 총력
신병교육 입소식 간소화 : 육군50사단, '코로나19 대응 현장' 르포
'면밀 대응' 육군훈련소 코로나 19 불안 없다
국방어학원 중국 우한 교민 임시 거주지 제공
국군대구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코로나19 본격 지원
국군대구병원, 코로나19 환자 치료 시작
신임 간호장교 대구파견
국군수송사 의료물자 전담수송팀 긴급 투입
국방부 '국방신속지원단' 긴급편성
대구 한마음아파트 한미연합 방역작전
미안마 방역물자 공군 수송기 긴급 투입
의무사 코로나19 앱 개발

제2장

다양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

전국 공항 등 21개소 군 의료인력 100여 명 투입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 긴급 대책회의
질병관리본부 등과 핫라인 구축
24시간 감염병 모니터링 강화
전군 '발열환자 관리지침' 시달
전국 공항 등 21개소 군의료인력 투입

1월 27일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수도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간호장교가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기기들을 준비하고 있다. ©조종원



정부가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방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는 2020년 1월 27일 전국 공항·항만 검역소 21곳에 군의관·간호장교 등 의료 인력과 일반 병력 100여 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다음 날인 1월 28일부터 방역과 관리 임무를 수행했다. 군의관 등 군의료인력은 검역조사와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일반 병력은 체온 측정 등 검역업무를 지원했다.

국방부는 전날(1월 2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검역소 인력 파견 지원 등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신병훈련소 등 병력이 밀집한 장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정 장관은 대책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차원 대응체계에 적극 참여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병 개인 예방수칙 및 증상 발생 시 조치요령 등을 적극 전파해 군 내 감염병 예방조치도 강력하게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한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처음으로 국내에서 확진환자가 확인된 지난 2020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잠복기간(최대 14일) 안에 중국을 방문한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증상 유무를 확인했다. 군 병원 응급실 감시체계를 활용해 24시간 감염병 모니터링도 강화,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외에도 장병들의 감염병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는 설 연휴 기간 장병들의 국내외 여행이 많아짐을 예상하여, 더욱 전군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강화했다. 국방부는 “명절 기간에는 음식을 공동으로 섭취하거나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A형 간염,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발생 위험도 증가할 수

있고, 해외여행 때문에 해외 유행 감염병 발생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감염병 확대를 막기 위해 전군에 ‘군 발열 환자 관리지침’을 시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강조했다.

또 해외여행 후 발열, 설사, 발진, 기침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가까운 군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종합상황센터(1688-5119)의 진단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심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진에게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2장

코로나19 발생과 우리 군의 대응

코로나19 확산 방지 · 軍 유입 차단 총력

국방부, 정부 업무지원 인력 추가 투입
장병 800여 명 예방적 차원 격리 조치
부대 출입 인원 통제 · 위생관리 만전
교육훈련도 지역 감염현황 고려 조정

2월 3일 인도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 검역소에 설치된 코로나19 검역 지원 군 상황실을 방문한 정경두(앞줄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관계자로부터 지원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방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부터 국민과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군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공항, 항만, 검역소 21곳에 의료 인력과 일반 병력 200여 명을 투입하여 역학조사·검역업무 등을 지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는 통역 혹은 특별 입국 업무를 지원할 일반 병력을 추가로 지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3일, 우리 군이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하고 있는 장병은 800여 명이지만, 아직 증상이 발견됐거나 의심되는 환자는 없다. 또 국방부는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마카오 등 인접 지역을 방문한 장병 현황까지 파악해 자가 격리 및 부대 격리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 가운데 해당 국가를 방문한 사람이 있거나 접촉한 경우에도 해당 장병을 격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격리 중인 800여 명 가운데 중국 등을 방문해 격리된 인원은 170여 명이며, 가족 등 제3자와 접촉한 장병은 630여 명”이라고 전했다. 격리 인원 가운데 간부가 300여 명, 병사가 490여 명이다. 이들 가운데 350여 명은 자택에서, 450여 명은 부대에서 격리돼 있다.

국방부는 현재 환자 발생 지역에 있는 부대만 휴가·외출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휴가를 시행하고 있다. 출타자가 복귀할 때에는 반드시 체온 측정 등 제반 검사를 하고 있다. 특히 외부인이 많이 오가는 국방부 본청에서는 1월 31일부터 출근길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에 출입하는 외부 인원 가운데 환자 발생 지역과 관련된 곳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외에 육·해·공군 본부와 각급 부대도 출근길은 물론 출타 장병의 부대 복귀, 외부인의 부대 방문 때 발열 체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육군은 2020년 2월 3일, 서울 참모총장 주관으로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서 총장은 주요 지휘관들에게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코로나19가 유입되면 전투준비태세 약화와 교육훈련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신병교육부대와 GP·GOP부대 등 현행작전 부대는 유입 차단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한 정보에 장병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부대 출입 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장병 위생관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육군은 지난 1월 28일부터 군단급 이상 부대에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 정부 검역에도 장병 130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2곳에도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감염병의 군내 유입 차단과 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과 야외훈련 지침을 하달했다. 교육훈련은 정상 시행하되 지역 내 감염현황을 고려해 조정하도록 했으며, 각종 소집회의와 행사도 축소하거나 취소했다. 더불어 신병교육 입소식과 수료식은 가족 동반 없이 자체 행사로 진행한다. 예비군훈련 시작일도 4월 이후로 연기했다. 육군은 향후 국가 전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될 경우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부대를 관리하는 가운데 국방부와 연계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모든 군내 활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장

다양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

신병교육 입소식 간소화 : 육군50사단 '코로나19 대응 현장' 르포

감염증 확산 방지 위해... 입영 현장부터 선제조치
가족·친지 동반 없이 부대 내 자체행사로 최소화해 진행
위병소 앞에서 발열 체크·문진... 열화상 카메라까지 갖춰
입영 장정 마스크·손 소독제 지급... 훈련 전·중·후로 관리



2월 4일 오후 육군50사단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 동반 없이 실시된 새해 첫 현역병 입소식을 앞두고 입영 장정들이 입소하고 있다. ©한재호

“가족 및 친지 분들은 아쉽겠지만, 이곳에서 헤어지셔야 합니다.”

지난 2월 4일 오후 1시, 육군50사단 남문 위병소 인근. 마스크를 착용한 군 장병들이 입영장정의 가족·친지들에게 신병교육 입소식 참여를 위한 부대 출입이 어렵다는 말을 전하며 양해를 구했다. 가족·친지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기념사진을 찍거나 포옹하는 것으로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입영장정들을 축하하고,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는 모습은 어느 입소식과 같았지만, 이날은 부대 안이 아닌 위병소에서 이러한 장면들이 연출됐다. 국방부와 육군이 군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 동반 신병교육 입소식을 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위병소 바로 앞에서는 부대 의무요원들이 입영장정들에 대한 발열 체크 등 제반 검사와 문진을 진행하고 있었다. 부대는 지역 보건소와 협조해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전염병 예방에 필수 장비인 열화상 카메라까지 갖추고 장정들의 발열 유무를 확인했다. 특히 유증상자나 의사환자가 식별될 경우를 대비해 구급차까지 대기시켜 놓았다.

열화상 카메라로 1차 발열 여부가 확인된 장정들은 손 소독과 체온 측정, 군의관에 의한 건강 상태 점검을 받은 뒤에야 위병소를 통과할 수 있었다. 다행히 이날 우려했던 유증상자나 의사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위병소 안으로 아들을 떠나보낸 손혜영(50) 씨는 “부대 안에 들어가 입영 행사까지 볼 수 있었다면, 아쉬움이 조금 덜하겠지만 군이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조치들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사단은 이날 새해 첫 신병교육 입소식을 열었다. 이번 입소식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족 동반 없이 부대 내 자체 행사로 최소화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가족·친지들의 부대출입을 제한한 가운데 장정들은 위병소 앞에서 간이 신검을 받고 입영했다. 이날 입영이 예정된 230여 명의

2월 4일 오후 육군50사단으로 입영하는 장정들이 위병소 앞에서 입소 전 체온측정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한재호



장정 중 미열 발생자 또는 확진자가 머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입영 또는 입영 연기를 선택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장정들이 입영을 선택했지만, 일부 장병들은 입영 연기를 선택해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부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입영을 선택한 장병들을 별도 마련된 생활관에 편성, 정상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위병소를 통과한 뒤에도 입영 장정에 대한 관리는 계속 이루어졌다.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손 소독제 사용과 손 씻기 등은 훈련 전·중·후로 나눠 단계마다 실시하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격리 조치를 했다.

현장에서 신경을 진행했던 이해성(소령) 의무근무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입영장정과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단은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입영 현장부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장정들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대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다중이용시설 사용 자제 등 감염증 예방을 위한 행동화 교육을 강화하고, 부대를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고 있다. 또 부대 위병소에 예방수칙 배너를 설치해 부대 출입 인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하루 2번 이상 부대 주요 시설에 대해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바이러스의 부대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더불어 부대는 상급부대의 지침에 따라 정기 휴가 등 장병 출타 시에는 지휘관이 예방수칙 교육을 진행하고, 부대로 복귀하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복귀 2일 전부터 전화 문진을 통해 장병 건강 상태를 사전 확인한다. 부대 관계자는 “사단은 장병들의 개인건강을 지키는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생활화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2장

다양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

‘면밀 대응’ 육군훈련소 코로나19 불안 없다

능동 감시·예방체계 구축 완료
예방적 관찰 대상자 격리시설 사전 마련
선별진료소 운영...양성환자 조기 식별
위병소 통과 시점까지 발열 체크·문진
서욱 육참총장, 현장서 예방체계 점검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의 군내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최근 능동적인 감시·예방체계를 구축, 입영장정과 부모님의 불안감을 씻어주고 있다. 육군훈련소는 매주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0여 명의 장정이 입영하는 육군의 관문인 동시에, 입영장정 가족과 친구 등 1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 국민 접촉의 최일선 부대이다. 이에 훈련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경각심을 갖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 ‘한 박자 빠르고, 한 단계 높은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훈련소는 설 연휴 직후 신속히 ‘예방적 관찰 대상자’를 위해 별도 시설을 마련하고, 입대 전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자와의 접촉이 확인된 인원은 1인 1실에 격리시키고 있다. 격리된 인원은 단독생활을 원칙으로 샤워나 화장실 이동 간에 다른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 외부와 접촉 및 노출을 방지하고 있다.

격리시설을 관리하는 통제 간부는 1일 2회 이상 대상자의 발열 여부와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실내 공기청정기 가동 상태를 상시 점검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주는 데 최선을 다한다. 육군훈련소 내 지구병원은 발열 환자가 많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원환자 중 코로나19 환자를 조기 식별하기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구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장병은 선별진료소에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병원에 출입할 수 없고, 출입문을 통과한 즉시 손 소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구에 손세정제와 담당자를 배치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국방부 지침에 따라 훈련소의 중요 행사인 신병교육 입소식과 수료식 등은 가족 동반 없이 간소하게 진행되고 있다. 입소 장정들은 부대 밖에서 가족·친구와 작별하고 위병소를 통과하게 된다. 이때도 발열 체크 및 간이 문진이 철저히 실시하는 등 물샐틈없는 바이러스



2월 5일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훈련소는 코로나19의 군내 유입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최근 능동적인 감시·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물 샐 틈 없는 바이러스 경계망을 가동하고 있다. ©육군제공

2월 5일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선별진료소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훈련소는 코로나 19의 군내 유입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최근 능동적인 감시·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물 샐 틈 없는 바이러스 경계망을 가동하고 있다. ©육군제공



경계망을 가동했다.

이 밖에도 육군훈련소 전 장병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한 가운데 기침 예절 준수, 비누와 손 세정제를 활용한 손 씻기 등 개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입소 장정 관리와 코로나19 예방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훈련소 관계자는 “육군훈련소의 감염자 발생은 곧 육군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인식과 투철한 각오로 신종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보도〉

“한 템포 빠르고 한 단계 높은 조치를”
서육 육참총장, 육군훈련소 코로나19 예방체계 현장점검



2월 5일 서육 육참모총장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육군훈련소에 설치된 ‘예방적 관찰 대상자’ 관리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예방 대책을 보고받고 있다. 서 총장은 매주 1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 육군훈련소의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방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육군제공

육군이 코로나19의 군 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 감염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육군은 지역 내 감염 현황을 고려해 교육훈련 조정과 각종 소집 회의와 행사를 축소 및 취소하는 등 ‘코로나19’의 군 내 유입 차단과 조기 발견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육 육참모총장은 2월 5일 육군훈련소를 방문, 입소장병 관리와 코로나19 예방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서 총장은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으로부터 훈련병 예방대책을 보고 받고, 훈련소가 구축한 ‘예방적 관찰 대상자’ 관리시설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 총장은 “육군훈련소는 전국에서 모인 다수의 인원이 단체생활을 하는 만큼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입소한 장병들의 건강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군 내 유입 완전 차단을 위해 각급 지휘관이 판단해 ‘한 템포 빠르고, 한 단계 높은 조치’를 해줄 것”을 강조했다.

서 총장은 지난 2월 3일에도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서 총장은 “신병교육 부대와 GP, GOP부대 등 현행작전 부대는 유입 차단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불확실한 정보에 장병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부대 출입 인원 에 대한 통제와 장병 위생 관리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제2장

다양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

국방어학원 중국 우한 교민 임시 거주지 제공

우한 교민 수용 · 진료에도 軍 적극 지원
3차 귀국 교민 국방어학원 임시 거주
코로나19 차단 범정부 노력 뒷받침
정경두 국방부장관 현장 방문 준비상황 확인
의무사 “국민 · 장병 건강 수호에 최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월 10일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을 찾아 중국 우한에서 3차 전 세기를 타고 귀국하는 교민 및 가족들이 지낼 시설물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경원

우리 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2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대응계획 브리핑에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市)에 남아있는 교민과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3차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차 항공편은 2월 11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12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3차 귀국자는 교민과 중국인 가족 등 150여 명이며, 경기도 이천시 소재 국방어학원에 머물렀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브리핑하면서 3차 전세기 투입 계획과 격리 방법을 발표했다. 중수본은 국방어학원을 임시시설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신속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수용인원의 적정성과 공항 및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군은 국방어학원에 의료 인력을 지원, 배치하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월 10일 3차 귀국자들이 머무를 국방어학원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국군의 사명”이라며 “우한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다가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를 포함한 우리 군은 지난 1월 31일부터 1·2차 귀국자들이 수용된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이동전개형 의무시설(DEPMEDS)을 운용하며 범정부적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에 동참했었다. 환자수용실·임상병리실 등으로 구성된 이동전개형의무시설은 전·평시 의무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전개해 환자 처치·수용을 제공하며, 국가 재해·재난 때도 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건물과 연결해 운용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용

할 수도 있다.

특히 최상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군은 ‘이동원격진료체계’를 구축·운용 중이다. 현재 야전에서 시범 운용 중인 이 체계는 ‘4세대 이동통신기술(LTE)’을 활용한 원격진료 시스템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이나 후송 과정에서 원격지(의료종합상황센터·군병원·의무대)에 있는 의료진과 다자간 화상통화로 환자 상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상담할 수 있다.

석웅(육군준장) 의무사령관은 “이동전개형 의무시설과 LTE를 활용한 원격진료체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우한시 교민에게 최상의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완벽한 군 의료 지원을 통해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과 국군 장병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장

다양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

국군대구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코로나19 본격 지원

대구·경북 확진환자 격리·치료 시작
병상 24개 활용...음압병실도 준비



3월 5일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개원한 국군대구병원에서 업무에 투입된
신임 간호장교들이 음압병실에 필요한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양동욱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주민들을 위해 우리 군이 군문(軍門)을 열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지난 2월 26일 “국군대구병원이 전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곳에 다량의 음압병실을 구비하기 위해 이현민(육군대령) 의무사 참모장을 팀장으로 한 의무사 의료지원단 대구 의료지원 TF팀이 현장으로 향했다”며 “앞으로 대구병원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환자들을 격리·치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군대구병원은 현재 총 24개의 병상을 활용했다. 또 대구시와 협의해 충분한 의무인력이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의무사는 대구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요청에 따라 국군대구병원의 병상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우리 군은 국군대구병원 내 코로나19 확진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음압병실을 준비했다. 음압병실은 내부의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내부의 바이러스가 밖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특수 격리병실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대구에 도착한 TF팀은 최우선적으로 대구병원 내 병상 확대와 음압병실 설치 극대화 방안을 마련했었다.

국군대구병원은 앞으로 지역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온 힘을 쏟을 방침이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전날 국군대구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직후 “대구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지원을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TF팀장인 이현민 참모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아 의무사는 국민·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군’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제2장

다양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

국군대구병원, 코로나19 환자 치료 시작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확대
병상 98개→303개…전 병상 음압병상
의료 인력 대폭 보강 ‘24시간 비상근무’

국군대구병원이 3월 5일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치료에 돌입했다. 이현민(육군대령)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 대구의료지원단장은 “전국 각지에서 의료지원 중인 의무사 예하 군 의관과 간호장교들은 전시에 임한다는 자세로 코로나19 입원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군대구병원은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구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군대구병원은 지난 2월 23일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병동 전체를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치료 전문병동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국방부와 군은 조기 전환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전력을 투입했다. 육군2작전사령부 예하 1117공병단 장병을 포함한 장병 525명과 대구시청 파견 인력, 민간시설팀 등 800여 명의 민·관·군은 휴일도 반납한 채 총력전을 펼쳐 지난 3월 3일 98개 병상을 303개로 확대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음압장비 121개를 설치해 전(全) 병상을 음압병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했다. 음압병상은 병실 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격리병상이다. 병실내부와 외부의 기압의 차이를 이용해 병실 내부의 병원균과 바이러스가 밖으로 퍼져 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병실이다.

의료 인력도 대폭 보강했다. 의무사는 전국의 군 병원에서 군의관·간호장교 130여 명을 국군대구병원으로 지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간호조무사 30여 명을 추가 파견했다. 지난 3월 3일 입관한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입 간호장교 75명도 3월 5일부터 입원환자를 돌보는 임무에 투입됐다.

의료진은 레벨(Level) D 보호구 착·탈의 집중훈련, 감염병 예방 교육·실습을 진행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준비를 마쳤다. 국군대구병원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외래진료 기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대구지역 확진환자 지원에 전념할 계획이다.



국군대구병원이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확대 운영에 돌입한 5일 의료지원 업무를 준비 중인 국군의무사령부 대구의료지원단 대원들이 응급실에서 나오고 있다. ©양동욱



국군대구병원이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확대 운영에 돌입한 3월 5일 간호장교들이 간호스테이션에서 환자 입원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양동욱

제2장

다양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

신임 간호장교 대구파견 “나보다 국민” 우린 최전선으로 간다

60기 간호장교 75명 임관 동시 대구행
정경두 국방부장관, 코로나19 극복 큰 힘 당부
군 의료인력 전국 곳곳 현장 자원 헌신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입 간호장교들이 3월 3일 코로나19 의료 지원을 위해 대구지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양동욱

범정부적인 ‘코로나19’ 대응에 군 의료인력의 헌신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3월 3일에는 임관과 동시에 60기 간호장교 75명 전원이 대구로 향했다. 이날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졸업 및 임관식을 마친 신입 간호장교들은 그 길로 국군의료지원단에 합류, 환자를 돌보는 것은 물론 진료 업무 등을 지원하며 ‘국민을 위한 군’으로서 임무에 돌입했다.

대구 출신인 곽혜민 소위는 “대구에 직접 갈 수 없어 가족과 지인들에게 간단한 예방수칙과 증상에 대해서만 알려줄 수밖에 없어 아쉬웠지만, 임관 후 고향을 도울 수 있어 영광”이라며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임한다는 각오로 그동안 단단히 쌓은 전문지식과 군인정신을 발휘해 국민에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원 소위는 “어려운 상황에 투입돼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며 “당당히 소위 계급장을 단 만큼 지난 4년 동안 배운 지식을 거름 삼아 임무를 수행하고 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신소현 소위는 “우리는 언제든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구 파견은 당연한 임무이며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당차게 말했다.

이날 졸업 및 임관식에 직접 참석해 이들을 격려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나이팅게일 선서’와 ‘장교 임관 선서’를 통해 다짐했듯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여러분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은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딸·아들을 코로나19 현장으로 보내는 부모들에게는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맞서 자진해 현장에 나가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의료인력도 '숨은 영웅들'이다. 군 의료진은 민간 의료진이 격리된 민간병원을 비롯한 곳곳에서 활약하며 의료공백 사태를 막아낸 일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서지원(육군대령) 국군수도병원 진료1부장은 확산 기로에 놓였던 코로나19 발생 초기 인천공항 검역소 근무를 자원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 이어 국군대구병원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대구로 내려갔다. 그는 대구병원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이곳이 국가감염병전담병원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4월 전역을 앞둔 국군의무사령부 변준수·우형택 대위도 군인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저 없이 대구·경북지역으로 향했다. 대구가 고향인 국군양주병원 간호장교 박동희 중위(진)는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우경인(중령) 수도병원 수술실장은 남편과 세 아이를 뒤로한 채 의사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지난달 우한 교민이 임시 거처로 이용한 인천 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을 지원해 교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 우경인 중령과 함께 수도병원에 근무한 송대근 중령은 의료진 감염으로 의료공백 위기에 처한 광주21세기병원에서 일반 환자들을 돌봤다. 이 밖에도 동생의 결혼식장 대신 현장을 선택한 박예지(대위) 국군대전병원 중환자선임간호장교, 7살 난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 인천공항 음압격리병실에서 쪽잠을 자며 활약한 심우호(중령) 국군춘천병원 진료부장 등을 비롯한 군 의료지원 인력 모두는 저마다의 사정을 뒤로한 채 국민을 위해 아직도 헌신하고 있다.

제2장

다양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

국군수송사 의료물자 전담수송팀 긴급 투입 대구·경북 가는 마스크, 軍이 실어 나른다

의료물자 전담수송팀 긴급 투입
국군수송사령부, 운전관·차량 편성
중계 수송 병행...최대 5시간 단축

군(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물자 전담수송팀을 긴급 투입했다. 국방부는 3월 9일 “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간 용역업체들이 수송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돼 대구에 주둔하는 육군5군수지원사령부(5군지사)를 중심으로 수송을 지원해 왔다”며 “그러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5군지사 장병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부대 지휘 부담이 커져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국군수송사령부(수송사)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송사는 대구·경북지역에 의료물자(마스크·방호복 등)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있는 예하 수송부대에서 운전경력이 풍부한 부사관 16명과 차량 16대로 전담수송팀을 편성했다. 이들은 감염예방을 위한 방호복을 갖추고 3월 9일부터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 비축물자를 비롯한 마스크 공급업체가 주로 대구 북쪽 지역에 있는 점을 고려해 대전 인근 수송부대를 연계한 중계 수송을 하기로 했다.

방호복을 완비한 전담수송팀을 투입하고, 중계 수송을 병행하면 출동 준비와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 서울 기준으로 최대 5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또 운전자들의 피로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군의 수송부대는 정부 소요에 대비해 상시 출동대기태세를 완벽히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5일 마스크 생산업체 공급량이 하루 600만 장 수준으로 증가해 ‘마스크 수급 안정 태스크포스(TF)’에서 야간에 수송 차량을 긴급 요청하자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새벽까지 수송을 완료했다.

수송사 전담수송팀을 지원하는 심학경(육군중령) 수송대대장은 “무엇보다 마스크 수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군이 민간 수송의 공백을 대신할 수 있어서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군의 지원으로 국민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지난 2월 26일부터 휴일도 반납한 채 정부의 긴급 물자 수송을 지원하고 있었다. 지난 3월 7일, 8일 주말에도 전국 14개 마스크 공급업체에 303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더불어 수·배송 차량을 이용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비축물자, 대한적십자사 위문품 등의 긴급 물자 수송을 지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정부 지원물자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수송전담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제주지역을 포함한 긴급 물자 소요 지역에는 수송 항공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지역에 의료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3월 9일 긴급 편성된 군 전담 수송팀 차량이 대구·경북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군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전 경력이 풍부한 부사관 16명과 차량 16대로 전담수송팀을 구성해 대구·경북지역 의료물자 지원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 ©이경원



제2장

다양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

국방부
'국방신속지원단' 긴급편성
코로나19 극복 '국방신속지원단' 긴급편성

방역·물자·수송·건설·복지 5개 팀
지원체계 '컨트롤 타워' 역할
권역별 책임부대 지정...접근성 높여



3월 23일 경기도 성남시 호성고등학교에서 공군방역지원팀(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장병들이 소독 장비를 이용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조종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많은 인력·장비를 투입하고 있는 국방부가 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출범시켰다. 국방부는 3월 12일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국방신속지원단'을 긴급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방신속지원단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군 지원 수요를 종합하고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국방부는 앞으로 국방신속지원단을 중심으로 방역·수송·물자·인력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적시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신속지원단은 방역·물자·수송·건설·복지지원 등 5개 지원팀으로 구성했다. 단장은 이복균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맡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대구·경북, 서울·경기, 충청 등 권역별로 지역책임부대를 지정해 지원 접근성도 높였다. 국방신속지원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의 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전담부대 지원과 지역책임부대-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조 범위를 초과하는 사안에 대한 지원 등도 함께 했다.

국방신속지원단을 이끌 이 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군과 신속지원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어려운 상황이 완전히 극복될 때까지 군이 가진 가용한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2장

다양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

대구 한마음아파트 한미연합 방역작전

육군2작전사령부 · 미19지원사령부
방역기 사용법 · 유의사항 사전 교육
포괄적 위협 상황 연합작전 능력 배양



육군2작전사령부 화생방대대 및 주한 미8군 19지원사령부 장병들이 3월 13일 대구 달서구 한마음아파트에서 한미연합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방역은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미19지원사의 의지가 2작전사에 전달되며 이뤄졌다. ©양동욱

우리 군의 코로나19 총력 대응은 주말과 휴일에도 계속됐다. 방역 지원과 마스크 수송 지원 등에 병력과 장비가 투입돼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탰다. 군은 3월 15일 병력 206명, 제독차 9대, 소독기 169대 등을 동원해 총 23건의 방역 지원을 펼쳤다. 특히 대구 지역에 집중방역지원을 실시해 병력 180명과 제독차 4대, 소독기 157대로 19건의 방역을 진행했다.

또 육군51사단, 56사단, 1군지사 등 17개 부대 474명을 투입해 마스크 수송 지원 등을 계속했다. 장병들은 20여 개 마스크 생산 업체 및 10여 곳의 물류센터 등에서 마스크 소포장·생산과 방역물자 수송을 지원했다. 아울러 113개 약국에서 마스크 판매 지원도 함께 실시했다.

이에 앞서 3월 13일 육군2작전사령부(2작전사)와 미19지원사령부(미19지원사)는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가 됐다가 해제된 대구 한마음아파트에서 한미연합 방역작전을 펼쳤다.

이번 한미연합 방역작전은 대구에 위치해 미8군의 군수지원 및 한반도 내 전투력 유지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19지원사가 3월 5일 대구·경북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 방역작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2작전사에 전달하면서 이뤄졌다.

2작전사 화생방대대 30여 명과 미19지원사 주한물자단 20여 명은 개인별 방호복과 방역기를 착용한 상태로 한마음아파트 진입로와 주차장 등 주변 곳곳을 방역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힘을 모았다.

미19지원사는 이번 한미 연합 방역작전을 위해 3월 10일 미군기지 내에서 2작전사 화생방대대의 지원받아 방역기 사용 요령과 방역 절차, 방역 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교육받는 등 효과적인 한미연합 방역작전을 펼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이날 한미연합 방역작전은 코로나19를 비롯한 포괄적 위협 상황에서도 한미 장병들이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자 실질적인 연

합작전능력을 배양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깊었다.

2작전사와 미19지원사는 추가적인 한미연합 방역작전의 시행 여부를 차 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2작전사 관계자는 “현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 지원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에서도 도움을 줘 힘이 됐다”며 “앞으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미19지원사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장

다양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

미얀마 방역물자 공군 수송기 긴급 투입

해외 방역물자 운송 임무 첫 수행
국방부, 줄다리기 협의 끝 검역 간소화
도착 물품 전국 의료시설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국방부가 사상 처음으로 방역물자 긴급 수송에 나선다. 국방부는 3월 18일 “해외 방역물자 운송을 위해 미얀마로 공군 C-130J 수송기 2대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다. 군 수송기가 해외 물자 운송 임무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얀마에서 들어오는 물자는 수술용 가운 8만 벌이다. 군 수송기를 통해 들어온 수술용 가운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지역 등 전국 의료시설에 전해질 예정이다. 현재 수술용 가운은 선별진료소 등에서 일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미얀마에서 수술용 가운을 수입하기로 했지만, 3월 9일 갑자기 국적사 운항이 중단되면서 물자를 들여오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박해진 국내 사정을 고려, 하루라도 서둘러 방역물자를 들여오기 위해 과감히 군 수송기를 보내는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운송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먼저 미얀마가 대구·경북에서 오는 승객·승무원들의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경남지역에서 오는 인원에게도 14일간 격리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김해지역에서 출발하는 수송기 승무원들도 입국에 제한을 받게 됐다. 결국 국방부는 미얀마 정부와 협의한 끝에 ‘김해에서 출발하는 수송기 승무원 전원이 건강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지 비행장 내에서만 임무를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군 수송기에 의한 상업물자 수출의 전례가 없는 데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으로 상황이 악화하면서 미얀마 외교부, 항공청, 세관 등과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는 흥역을 치르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 수송기를 통한 비군용 방역물자 수송은 군이 급박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만든 최초의 사례”라며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국방부와 외교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도록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3월 18일 아침에 김해공항에서 출발한 공군 수송기는 21여 시간 걸친 3월 19일 새벽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해 미얀마에서 운송된 방역 물자를 해당 업체 물류창고로 차질없이 운반됐다.

임무 통제를 맡은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이덕희(대령·진) 항공작전전대장은 “2박3일 걸리는 거리를 무박 2일로 오가는 강행군이지만, 환자를 직접 상대하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드리게 된다고 생각하니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서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일에 공군도 한몫을 감당할 기회가 주어져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장병들이 지난 3월18일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에서 C-130J 수송기에 방역물자를 적재하고 있다. ©공군제공

제2장

다양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

의무사 코로나19 앱 개발 국군의무사 '코로나19 앱' 세계가 반했다

플레이스토어 접속자 20만 명 돌파
미국·캐나다 등 외국인이 절반 이상 접속
美 종합병원·스페인 통신사도 사용
구글 “개발 적극 지원하겠다” 밝혀



국군의무사령부가 개발한 '코로나19 체크업' 앱과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앱 초기 화면. ©부대제공

국군의무사령부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관련 앱인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코로나19 체크업’(본지 3월 12일 자 2면)이 세계적인 호평을 얻고 있다.

4월 2일 의무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체크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록 후 현재 접속자 2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처음 스토어에 등록된 지난달 3월 14일에는 등록 하루 만에 의학 분야 앱 내려받기 순위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의무사 관계자는 “접속자 절반 이상이 미국·캐나다·인도네시아 등 외국인”이라며 “의무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앱에 관한 관심이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해외 조사 커뮤니티인 ‘ICT works’는 ‘세계 10대 코로나 관련 기술’ 중 하나로 의무사의 앱을 선정했다. 미국 종합병원 ‘카이저 네트워크’와 스페인 국영통신사 ‘텔레포니카’도 앱 사용 의사를 전해 왔다는 게 의무사의 설명이다. 구글도 코로나19 앱 개발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앱을 개발한 의무사 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 개선 태스크포스(TF) 허준영(신경과 전문의) 대위는 “나의 작은 재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장병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앱을 개발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무사는 여세를 몰아 개발한 앱들을 기반으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코로나19 예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체크업 앱과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앱을 이용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인공지능과 연계해 코로나19 감염 여부 예측과 확진자 예후까지 예측하는 모델을 일반 사용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제공할겠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의무사는 국군수도병원 등 예하 4개 병원의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기 모델을 개발한 뒤, 외국 민간병

원과 손잡고 국내외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석웅 의무사령관은 “장병과 군 의료진의 건강 사수를 위해 개발한 코로나19 앱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돼 정말 뿌듯하고 감회가 새롭다”며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장병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무사의 사명을 잊지 않고 헌신적으로 의료지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보도>

코로나19 자가진단·중증도 분류 앱 개발 화제

의무사 허준녕 육군대위
중증도 판정 오류 낮아지고 진료 시간도 30초로 단축

현직 군의관이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중증도를 쉽게 진단·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앱)을 개발해 화제가 됐다. 주인공은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 성능개선 태스크포스(TF)에 근무하는 허준녕 육군대위이다. 그는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7판 '환자의 중증도(무증상·경증·중증·위중) 분류' 내용을 보던 중 현장에서 고생하는 동료 군의관들을 떠올렸다고 했다.

기존의 환자 중증도 분류는 확진자 증상에 따라 분류 기준을 세분화해 의료진이 진료할 때마다 환자 상태와 대응지침을 매번 대조·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허준녕 대위는 동료 군의관들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앱을 만들었다고 했다.

일과를 마친 후 밤을 새우며 앱 개발에 몰두한 그는 지난 3월 2일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을 기반으로 한 허준녕 대위의 앱 덕분에 환자의 중증도를 판정하는 진료 시간이 5분에서 30초로 단축됐고, 판정 오류도 대폭 낮아졌다.



국군의무사령부 허준녕 대위가 자신이 만든 코로나19 체크업 앱을 설명하고 있다.
©의무사제공

의료지원 현장에서 이 앱을 사용하는 군의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관련 업무를 해보지 않은 의료진도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쉽게 할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증 환자를 선별·분류하고,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환자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녕 대위의 앱 개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월 6일 의료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체크 업(Check Up)’ 앱을 만들었다. 이 앱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스러울 때 자신의 증상을 입력하면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자가 증상 확인용이다. 이 앱을 활용하면 본인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선별진료소 안내 기능이 있어 증상의 위험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환자는 현장 문진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허준녕 대위는 의과대학 재학 시절 학생들을 위해 ‘스터디 메이트(Study Mate)’라는 타이머 앱도 만들었으며, 당시 앱스토어 전체 판매 순위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환자들에게 주변 응급실 위치를 알려주는 ‘뇌졸중 119’ 앱을 개발했었다.

허준녕 대위는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된 모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선후배,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한다”며 “나의 작은 정성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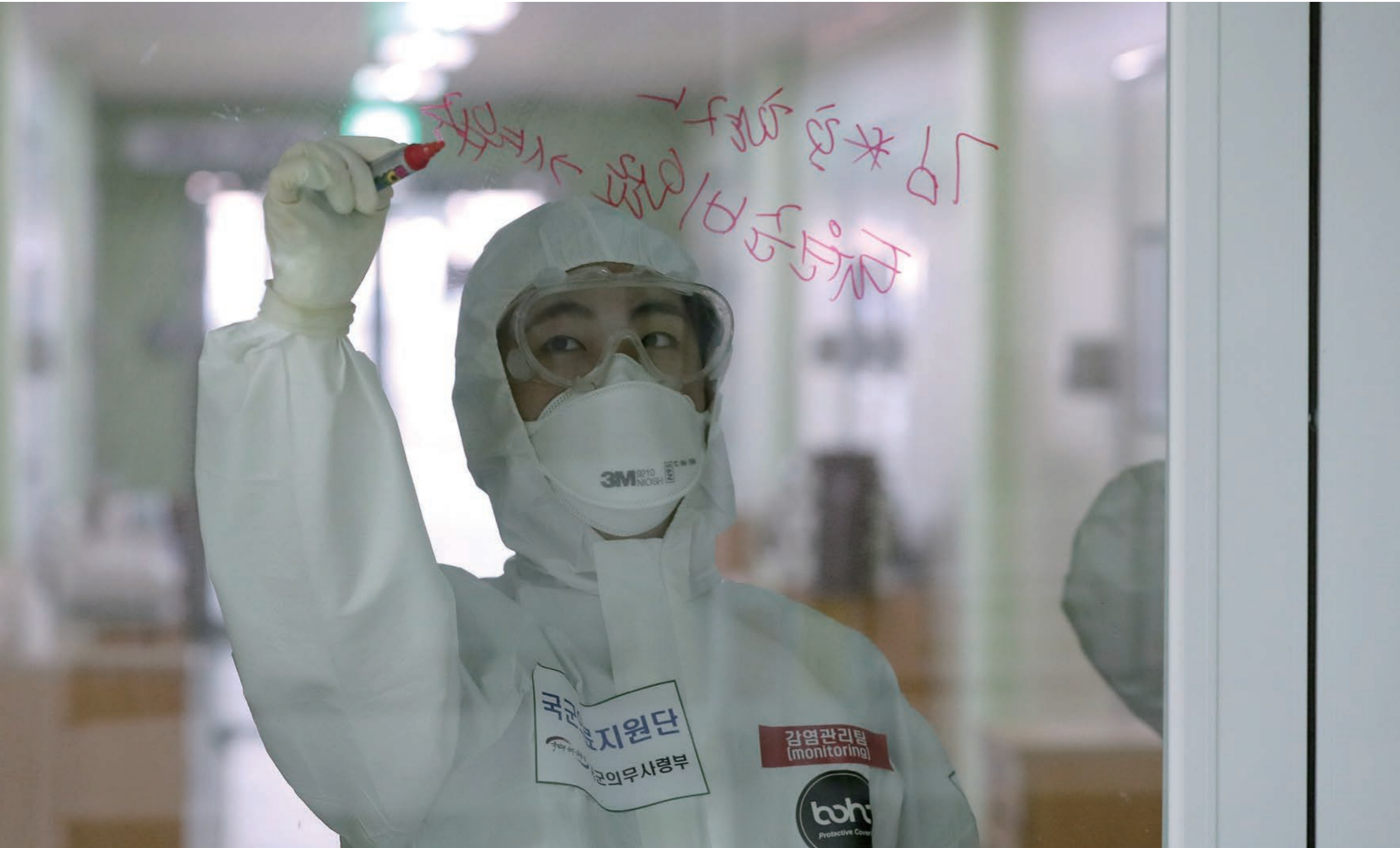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6일 국방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국군의무사령부 허준녕 대위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양동욱



제3장

현장 화보

1. '포토스토리' 국군대구병원 감염관리장교 강혜진 대위
2. 최전선 대구·경북에서
3. 국민과 함께
4. 함께 이겨냅시다



국군대구병원 감염관리장교 강혜진 대위가 음압병실에서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고 유리창에 "환자 퇴원 준비 완료" 메시지를 외부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있다. ©양동욱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병원과 대구·경북, 대한민국에 어서 봄이 와서 소소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에 확산한 지 한 달.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인 국군대구병원 감염관리장교로 코로나19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강혜진 대위를 만났다. 강 대위는 같은 병원 의무 보급장교로 근무 중인 황인호 소령(진)의 아내이자, 6살 서영 양과 4살 서준 군의 엄마다.

감염관리장교 강혜진 대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의료기관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감염관리장교의 임무는 감염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감염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병원 내 의료진과 지원 인원, 퇴원 환자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다양한 교육 자료와 지침서를 직접 제작한다.

코로나19로 국군대구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중 첫 완치자가 퇴원하던 이날 강 대위는 출근과 동시에 감염관리태스크포스(TF)팀 회의로 하루를 시작했다. 퇴원 시 감염관리 프로토콜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다.

퇴원 절차를 밟는 환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음압 병실에 들어가기 전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레벨D 방호복, 얼굴을 꼭 조이는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했다. 이 모



출근하기 전 현관에서 남편 황인호 소령(진)과 함께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강혜진 대위. ©양동욱



강혜진 대위가 딸 서영양이 보낸 응원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 속에는 딸 서영양이 "엄마·아빠 과일 먹고 힘내세요"라고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양동욱

숨은 보는 이도 숨차게 했다. 긴장된 눈빛으로 방호복을 착용한 강 대위는 "첫 완치자가 퇴원하는 기쁜 날이니 발걸음은 조금 가볍다"며 동료들과 함께 음압병실 입구에서 승리의 V를 그려 보였다.

"환자 퇴원 준비 완료. 샤워 중"이라고 음압병실의 유리창에 글을 써 외부에서 대기하던 의료진에게 상황을 알린 다음에야 마스크 너머로 안도하는 표정이 보였다.

감염관리장교인 강 대위는 응급실 선임간호장교도 겸하고 있다. 응급실에서는 착의실과 환경소독 물품 준비, 음압텐트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아내이자 엄마 강혜진 씨

"엄마·아빠, 과일 먹고 코로나 이기고 오세요~."

늦은 점심 식사를 마친 강 대위는 휴게실로 발걸음을 옮겨 딸 서영양과 잠시 영상통화를 했다. 서영양과 해맑은 표정으로 통화하던 그는 전화를 끊은 뒤 잠시 눈물을 글썽였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최전선에서 간호장교 임무를 수행 중인 그는 지금 엄마와 아내의 역할에 잠시 소홀할 수밖에 없다.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두 자녀는 광주의 부모님 댁에 맡겼다. 국군대구병원이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돼 개원을 준비하며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자녀들과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광주로 보낸 것이 가장 마음 아프다고 한다.

근무지 환경 탓에 네 가족이 함께 지낸 지 2주 만의 이별이었다. 그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되면 가장 먼저 아이들을 만나러 가서 마음껏 안아주고 싶다"며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양가 부모님께도 고마운 마음이 크다고 했다. 같은 병원 의무보급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남편 황 소령(진)을 하루에 한 번도 못 마주치는 날이 부지기수다. 그는 "부부가 각자의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말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 강 대위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주변의 동료들이다. 그는 현재 전국 곳곳의 국군병원에서 파견돼 감염관리TF팀으로 함께 생활 중인 팀원들을 비롯해 국가감염병 전담병원 전환을 함께 준비했던 국군대구병원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코로나19 종식의 희망을 품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겨 마지막에 다 함께 웃으며 지금의 순간을 영광스럽게 기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휘영청 밝은 달빛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한 그는 밤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며 또다시 내일을 기다린다.



강혜진 대위가 퇴원환자 모니터링을 위해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양동욱



음압병실에서 외부 의료진에게 내부 상황을 설명중인 강혜진 대위 ©양동욱



응급실 선임간호장교를 겸하고 있는 강혜진 대위가 응급실에서 환자 입원현황 등 일정을 정리하고 있다. ©양동욱



강혜진 대위가 응급실에서 감염관리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양동욱



강혜진 대위가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한 뒤 간호스테이션에서 환자 퇴원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강혜진 대위가 소속된 감염관리TF 팀원들이 회의를 마친 뒤 파이팅을 하고 있다. ©양동욱



국군대구병원 감염관리장교 강혜진(맨 앞) 대위가 퇴원환자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음압병실에 들어가기 전 동료 의료진과 승리의 V를 그려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탑승한 구급차가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확대 개원한 국군대구병원 정문을 오가고 있다. ©양동욱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확대 개원한 국군대구병원 응급실 입구에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탑승한 구급차가 오가고 있다. ©양동욱

구급차에 탑승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환자의 동선을 안내하고 있다. ©양동욱





국군의무사령부 대구의료지원단 의료진이 국군대구병원 간호스테이션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양동욱

신임 간호장교들이 음압병실에 필요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 ©양동욱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된 신임 간호장교들이 음압병실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양동욱



국군의무사령부 대구의
료지원단 박은경(국군양
주병원) 대위의 얼굴에
오랜 시간 마스크 착용으
로 인해 자국이 남아 있
다. ©양동욱

국군대구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첫 완치환자의 퇴원을 축하하며 환송하고 있다. ©양동욱



국군대구병원 응급실에
서 의료진이 확진 환자
입원 절차를 준비하고 있
다. ©양동욱





대구동산병원 1차 군 의료지원팀 김혜진(국군포천병원) 대위가 중환자실 진료를 마친 뒤 탈의실을 나서고 있다. ©양동욱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군 의료지원팀 임무교대식에서 1차 의료지원팀원들이 손 대신 '팔꿈치 하이파이브'로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양동욱

임무를 마친 1차 군의료지원팀 김혜주(왼쪽) 대위가 동산병원 의료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양동욱





육군2작전사령부와 50사단 장병들이 대구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양동욱

대구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방역활동을 하는 한 장병의 고글에 김이 서려 있다.

©양동욱



대구국제공항 방역작업을 하는 육군2작전사령부와 50사단 장병들. ©양동욱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3화생방대대 제독차량이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도로를 방역하고 있다. ©양동욱



방호복을 착용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장병이 계명대학교 캠퍼스를 방역 중인 제독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양동욱



육군2작전사령부 장병들이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코호트 격리된 대구 달서구
한마음아파트에서 방역작
업을 하고 있다. ©양동욱



육군2작전사령부 장병들이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코호트 격리된 대구 달서구 한마음아파트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양동욱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현장지원팀이 코로나 19 확산차단을 위해 코호트 격리된 대구 달서구 한마음아파트 내부 방역을 위해 건물로 들어가기 전 서로의 복장을 점검해주고 있다. ©양동욱



대구 달서구 한마음아파트 내부 방역을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있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현장지원팀. ©양동욱





육군50사단 서구대대 장병들이 대구염색산업단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양동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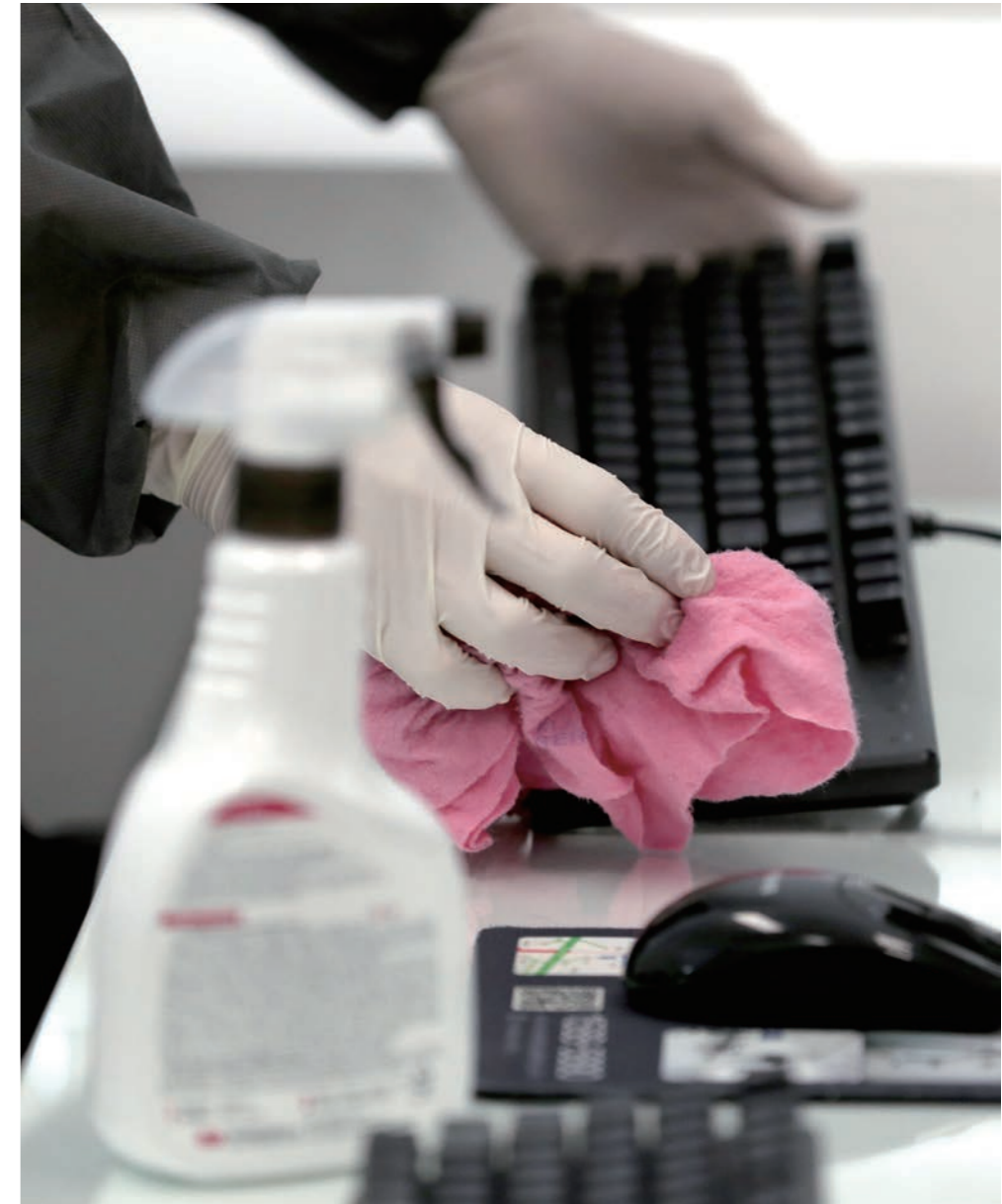
육군50사단 달서구대대 장병들이 대구 달서구의 한 주민 공용 생활시설에서 생활밀착형 방역의 일환으로 거주자들의 손길이 닿는 곳에 소독약을 이용해 꼼꼼히 닦고 있다. ©양동욱



육군50사단 동구대대 장병들과 여성예비군, 특전예비군이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양동욱



육군201특공여단 장병들이 대구 중구의 한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밀착형 실내 방역을 하고 있다. ©양동욱





육군201특공여단 비호대대 장병들이 대구 남구의 한 버스차고지에서 회차하는 차량 내부를 꼼꼼히 닦는 생활밀착형 방역을 하고 있다. ©양동욱



육군50사단 중·남구대대 장병들이 대구 중구 일대의 방역작업을 위해 이동하며 봄꽃이 활짝 핀 홍자두 나무 앞을 지나고 있다. ©양동욱

육군50사단 중·남구대대 장병들이 대구 중구 대봉동 일대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양동욱



입영 장정들이 입소 전 위병소 입구에서 마스크를 지급하는 한편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입영 장정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한재호





대구 한마음아파트에서 한미연합방역을 마친 한미 장병들이 부대마크를 교환하며 팔꿈치를 맞대고 있다. ©양동욱



육군2작전사령부 화생방대대 김보슬 중사가 대구 달서구 한마음아파트에서 열린 한미 연합 방역작전을 마친 뒤 고글을 벗고 있다. ©양동욱

주한 미8군 19지원사령부 장병의 안경에 대구 달서구 한마음아파트에서 한미 연합 방역작전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양동욱





주한 미8군 19지원사령부 장병이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하고 있다. ©양동욱



주한 미8군 19지원사령부 장병들이 대구 달서구 한마음아파트에서 한미 연합 방역작전에 앞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하고 있다. ©양동욱



육군2작전사령부 화생방대대 및 주한 미8군 19지원사령부 장병들이 대구 달서구 한마음아파트에서 한미 연합 방역작전을 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양동욱



졸업 및 임관식에서
꽃다발을 받은 국군
사관학교 60기 간호
장교가 코로나19 의
료지원을 위해 대구
행 버스에 탑승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양동욱



국군사관학교 60기 간호장교들이 코로나19 의료 지원을 위해 대구행 버스에 탑승하며 후배 생도들과 인사를 나누며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양동욱



국군사관학교 60기 간호장교들이 대전 유성구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졸업 및 임관식을 마친 뒤 코로나19 의료 지원을 위해 대구행 버스로 향하며 후배 생도들의 환송을 받고 있다. ©양동욱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역 지원에 나선 육군 수도군단 장병들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검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한재호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고양병원 군의관과 간호장교로 구성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역 지원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이동하고 있다. ©양동욱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코로나19 검역 지원에 나선 육군 수도군단 장병들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검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한재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장병들이 서초구청에서 K-10 신형화생방 제독차량과 중형제독기를 이용해 방역을 하고 있다. ©조종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장병들이 서초구청에서 방역작업에 앞서 서로의 복장을 점검해 주고 있다. ©조종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특임대 도로건물방역팀 장병들이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 병원 안심진료소 앞에서 K-10 신형화생방 제독차량과 증형제독기를 이용해 방역을 하고 있다. ©조종원

육군수도방위사령부 화생방제독차량이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재호

육군수도방위사령부 화생방제독차량이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 한재호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6사단 장병들이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재호



육군1군단 701특공연대 장병들이 경기도 고양시에 설치된 코로나19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에서 차량을 타고 들어선 검진 희망자를 안내하고 있다. ©한재호



육군32사단 장병들이 대전역에서 코로나19확산에 대비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조종원



육군사관학교 근무지원단 장병들이 서울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한재호



육군사관학교 근무지원단 장병들이 서울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한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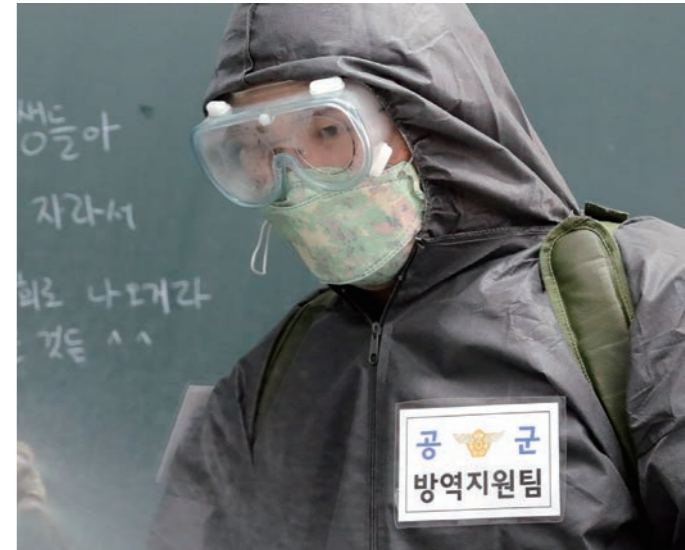


육군56사단 비룡부대 예비군 동대장들이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조종원





공군방역지원팀(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장병들이 경기도 성남시 효성고등학교에서 코로나 19 방역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조종원





육군55사단 화생방지원대 제독 차량이 개강을 앞둔 경기도 용인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조종원

해외 입국자 격리 시설로 지정된 충남 천안의 리조트 시설에 파견돼 퇴근도 휴일도 없이 격리자 지원 임무를 수행한 육군32사단 상근예비역 용사들이 격리자 생활 건물 앞에서 식사 배달을 준비하고 있다. ©양동욱



육군32사단 상근예비역 용사들이 예방적 격리 중인 해외 교민과 외국인 130여 명분의 식사를 1인용으로 재포장하고 있다. ©양동욱



육군25사단 정룡연대 장병들이 서부전선의 한 민통초소에서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 차량 탑승자의 체온 및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양동욱





육군9사단 의무대 장병들이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해 손을 씻고 있다. ©양동욱



육군9사단 의무대 장병들이 사단 사령부 위병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에 탑승한 인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양동욱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2항공여단 장병들이 흑한기 훈련 간 공중강습작전 훈련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CH-47D 시누크 항공기를 방역 하고 있다.
©조종원



대구·경북지역에 의료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9일 긴급 편성된 군 전담수송팀 장병들이 충남 논산시 물류창고에서 차량에 의료물자를 적재하고 있다. ©이경원



해군 장병과 군무원들이 해군보급창 병참지원
대에서 면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다. ©조종원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김은기(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김해 공군기지에서 6·25전쟁 참전용사에게 지원할 마스크를 적재한 C-130J 수송기를 배경으로 #UN 참전용사 덕분에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조종원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장병들이 김해 공군기지에서 6·25전쟁 참전용사에게 지원할 마스크를 C-130J 수송기에 적재하고 있다. ©조종원



중국 우한시 교민들의 격리시설로 이용된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 파견된 국군의무사령부 장병들이 이동전개형 의무시설(DEPMEDS) 진료실에서 LTE를 활용한 원격진료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조용학



중국 우한시 교민들의 진료지원을 위해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전개된 국군의무사령부의 이동전개형 의무시설(DEPMEDS)에서 육군21사단 의무근무대 임상병리부사관 정우철 중사가 이동진료소의 외부 배선을 점검하고 있다. ©조용학



중국 우한시 교민들을 보살피기 위해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전개된 국군의무사령부의 이동전개형 의무시설 (DEPMEDS)에서 국군양주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 김대호 사무관이 이동진료소 내 X-Ray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조용학



국군의무사령부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창신 대위가 중국 산둥성에 체류 중인 한국인 확진 환자에게 화상 의료 상담을 하고 있다. ©조종원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 정보통신대대 장병들이 국군대전병원에서 음압병실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경원



국군대전병원 간호장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하나로 음압병실 확대 운용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경원





육군2작전사령부 외래병원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고 지원 근무중인 파견 간호장교 김태은(특전사 의무근무대) 중위가 2작전사 관계자로부터 '희망의 꽃송이'를 받은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양동욱

국방부 운영지원과 직원들이 국방부 본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위해 구입한 꽃을 각 사무실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조종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장병들의 대외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경기도 양주시 육군72사단 장병들이 전장순환운동 기록왕 선발 대회를 준비하며 타이어 끌고 달리기를 하고 있다. ©조용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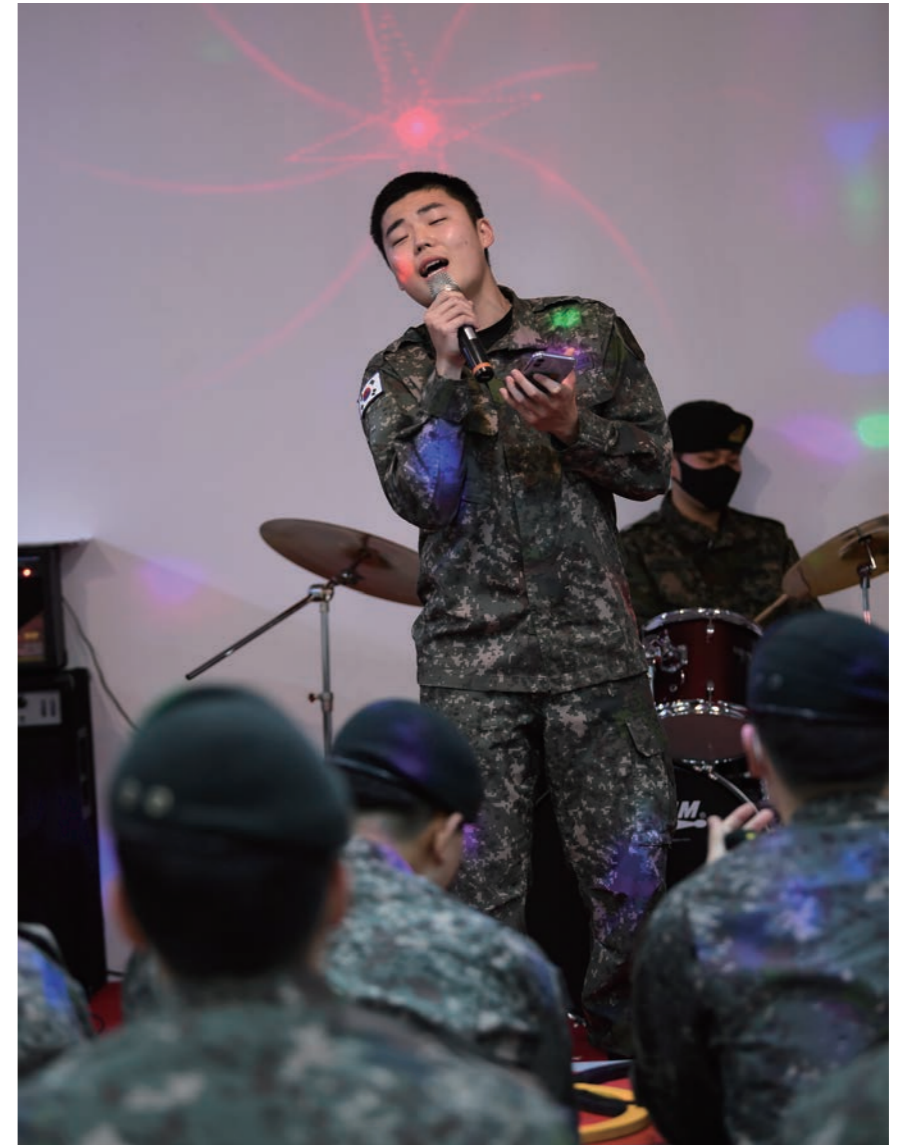


육군72사단 한 병사가 '마음을 보내다' 이벤트에 참가해 부모님께 영상편지를 보내고 있다. ©조용학



육군72사단 한 병사가 사단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공모전인 '상상문화 올림픽에 응모할 그림을 그리고 있다. ©조용학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장병들의 대외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경기도 양주시 육군72사단 장병들이 사단내 악기연주실인 '올림픽 뮤직 클럽(Olympic Music Club)'에서 밴드 공연을 하고 있다. ©조용학



육군특수전사령부 비호부대 특전 장병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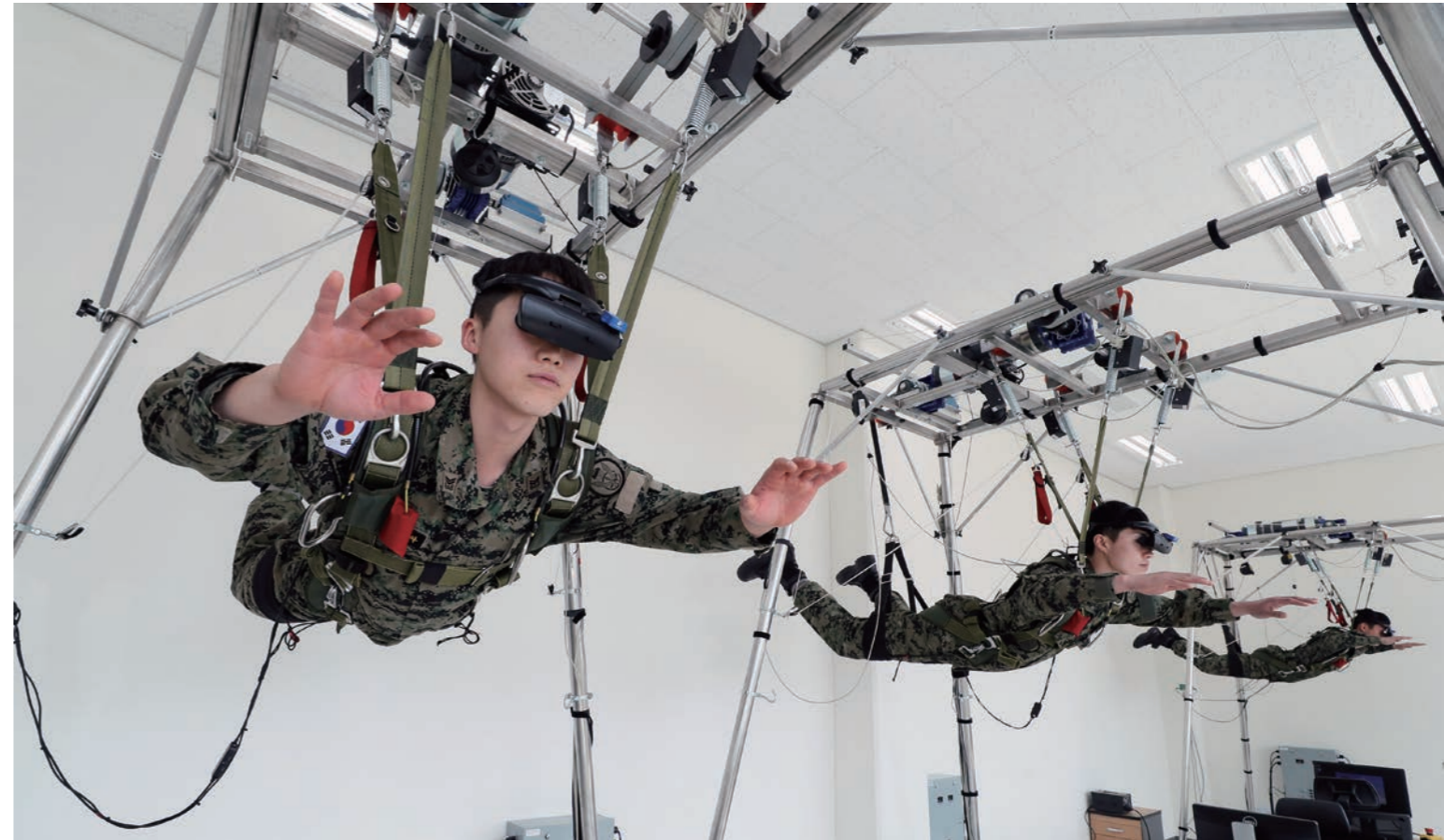




육군 특수전사령부 장병들이 약7m 인공 암벽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한재호



육군 특수전사령부 장병들이 일과 후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한재호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전투력 도약의 기회로 역이용하며 주둔지 내 교육훈련을 강화한 가운데 육군특수전사령부 고공센터에서 특전 장병들이 가상현실(VR)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공 강하 조종술 시뮬레이터 훈련을 하고 있다. ©한재호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전투력 도약의 기회로 역이용하며 주둔지 내 교육훈련을 강화한 가운데 육군특수전사령부 최정에 대테러 요원들이 권역화 훈련장 내 실내 방음사격장에서 대테러 상황을 가정한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한재호



육군 특수전사령부 비호부대 장병들이 20kg 군장을 착용하고 무장 뒹굴음을 하고 있다. ©한재호

해병대2사단 화생방대대 장병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공급난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헌혈하고 있다. ©조종원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화교육센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거리를 유지한 채 줄 서 있다. ©한재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됐던 병역판정검사가 8주 만에 재개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검역판정 검사 대상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한 자리씩 간격을 띄우고 자리에 앉아 심리검사를 하고 있다. ©양동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됐던 병사 평일 및 주말 외출이 부분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경기도 수원시 공군 10전투비행단 병사들이 외출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조용학



공군10전투비행단 병사들이 외출을 나오고 있다. ©조용학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군 장병 휴가가 재개된 가운데 서울역 TMO를 찾은 장병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손소독을 하고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양동욱

